

Made in HP, HP 디지털복합기

세계적인 프린터 No.1 HP가 만드니까 부서용 대형 디지털복합기도 다릅니다

HP가 프린터 No.1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로 부서용 대형 디지털복합기를 선보입니다.

HP가 제공하는 유니버설 프린트 드라이버(UPD)와 함께 귀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네트워크 상에 있는 여러 HP 장비들을 단 하나의 드라이버만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한결
쉽고 간편합니다. 이제 HP 대형 디지털복합기로 귀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차원 더 올리십시오.

프린터의 기술이 디지털복합기의 기술입니다 -HP 디지털복합기



HP 디지털복합기 M5035xsMFP

- 인쇄, 컬러스캔, 복사, 디지털전송, 팩스기능
- 50매 자동문서공급기(ADF)
- 내장 HP 젯다이렉트 프린트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
- 40GB 고성능 내장하드 디스크
- A3 용지지원, 최고 35ppm
- HP 스마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 최대 2100매 급지용량
- 단 하나의 드라이버 -UPD 기본 제공



HP 디지털복합기 M5025MFP

- 인쇄, 컬러스캔 복사, 디지털전송, 팩스(옵션가능)
- 50매 자동문서공급기(ADF)
- 내장 HP 젯다이렉트 프린트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
- 40GB 고성능 내장하드 디스크
- A3 용지지원, 최고 25ppm
- HP 스마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 단 하나의 드라이버 -UPD 기본 제공



HP 디지털복합기 M3035xsMFP

- 인쇄, 컬러스캔 복사, 디지털전송, 팩스기능
- 50매 자동문서공급기(ADF)
- 내장 HP 젯다이렉트 프린트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
- 40GB 고성능 내장하드 디스크
- A4 용지지원, 최고 35ppm
- HP 스마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 단 하나의 드라이버 -UPD 기본 제공



HP 디지털복합기 M3027xMFP

- 인쇄, 컬러스캔 복사, 디지털전송, 팩스기능
- 50매 자동문서공급기(ADF)
- 내장 HP 젯다이렉트 프린트 서버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
- 40GB 고성능 내장하드 디스크
- A4 용지지원, 최고 27ppm
- HP 스마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 단 하나의 드라이버 -UPD 기본 제공



HP 레이저젯 보상판매 대잔치

행사 기간 중에 아래의 행사제품을 구입하신 후,
구형 프린터 (타사제품 포함)을 반납하시면 최대 57.5%까지 보상에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06년 12월 4일 ~ 2007년 2월 28일
- 행사제품 : HP 컬러 레이저 젯/모노 레이저 젯/복합기 전체 품(일부 품목 제외)
- 대상제품 : HP 공인 협력업체
- 구형 장비 반납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곡동 657-3 시화공단 4차 404호 (1588-0410)
- 구형 장비 반납: 우체국택배 (1588-1300) 만 가능 합니다.
- 특판은 본 행사에서 제외되며 구형 반납장비에 따라서 보상판매 가능한 프린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및 구매 정보 : 1588-0410

제품 정보 : 080-703-0710

www.hp.co.kr/event/giveback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바람속에 먼지되어...



작가_도·지·성 | Acrylic on Canvas · 160×130cm · 2006

최 근 나는 물감을 뿌려서 그린다. 붓으로 그리기 보다는 붓에 물감을 충분히 묻혀 캔버스에 떨어낸다. 나와 캔버스를 매개하던 붓이 무더질수록 감각은 사라졌다. 그리기 보다는 물감을 던지듯 뿌릴 때, 감각을 직접 캔버스로 전달할 수 있었다.

‘바람속에 먼지되어’ 라는 연작중의 하나인 이 작품은 인천 주변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본 풍경화다. 인공의 건축 구조물들은 작게 그려져 있고, 화면은 넓고 허허롭다. 자연 앞에 인간과 구조물들은 하염없이 작고, 영원한 시간 속에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라지구의 여름은 푸른 들과 시냇물로 아름다웠다. 풀 한포기,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우주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 도 지 성 -



Good Morning INCHEON



COVER 연수구 원인재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이일희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김미희
 여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자유사진가) · 김정식(자유사진가)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7년 1월 10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인천출판사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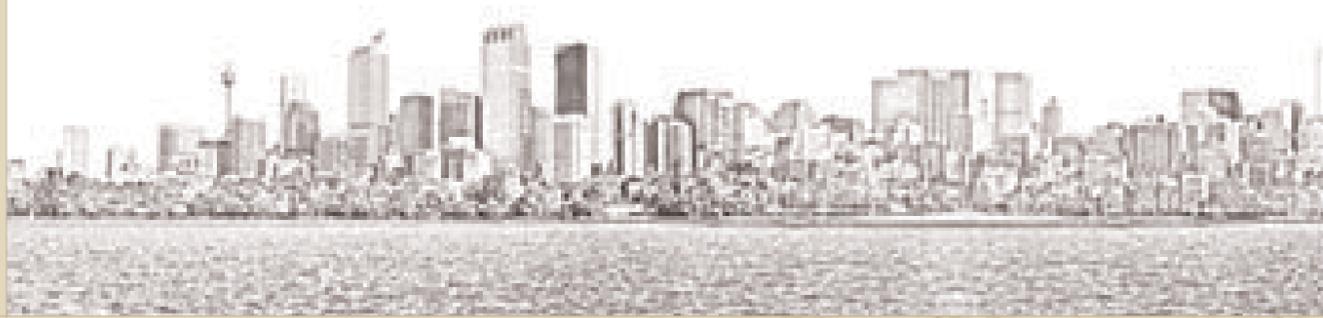
- 04 **신년사**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창규
- 06 **From Space, View the Future** |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가 그려진다
- 08 **가보니 좋았더라** | 석모도 겨울여행
- 12 **굿모닝 브리핑** |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 16 **아이들과 함께 동네한바퀴** | 근대건축전시관
- 18 **Good Incheon Good Year** | 2007년 달라지는 시장 알아두면 BEST LIFE~
- 22 **포커스** | 청라지구 Hi-Tech Park 조성사업
- 2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미운 자식에게 딱 하나 줄까 말까
- 24 **정보뱅크 출산장려정책** | 이제 낳으시죠! 우리시가 키우겠습니다
- 26 **굿인천 굿뉴스** | 장애인 콜택시 증차 외
- 29 **경제자유구역 소식** | 서울의대 · 가천의대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외
- 30 **시의회소식** | 2006년 의정 결산
- 32 **자매도시 우호도시 ①** | 미국 버뱅크시
- 33 **인천시민은 국제시민** | 약속은 사교활동의 문
- 34 **모닝커피 한 잔** | 동북아의 두바이를 꿈꾸는 송도국제도시
- 35 **김치찰칵**
- 36 **스포츠라이트** | 로봇산업과 인천
- 40 **이달의 공연** | 소프라노 신영옥 신년콘서트 'Love Duets' 외
- 42 **인천이 담긴 詩 ①** | 李仁石 '만국공원'
- 44 **부자아빠 부자엄마 아들살을 재태크** | 황금돼지띠해 성투하려면?
- 45 **Healthy Life 건강백세** |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 46 **꿀독이 · 꿀순이와 떠나는 인천 격동한세기 ①** | 100년 넘게 불 밝혀 준 팔미도 등대
-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인하대학교 배구감독 최천식 씨
- 52 **숨씨마당** | 이번달 주제 '돼지'
- 54 **Info Box** | 국가기록! 미래의 소중한 정보자원입니다 외
- 58 **신(新) 인천어부사시사** | 겨울철 대표 웰빙 식품 '김'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함께 갑시다



희망찬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인천은 교통, 주거, 환경, 복지, 교육 등 시민 생활의 질 향상에 시정을 주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경제자유구역의 가시적인 성과와 도시균형 발전사업의 착실한 준비 등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넓혀 나갔습니다.
 저는 희망찬 2007년을 맞이하여 동북아의 허브도시에서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금년도 시정방향을 '동북아의 중심도시 건설' '도시공간의 재창조' '최고의 정주 여건 조성'과 자립형 복지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문화와 교육환경 조성' '인천 도시 브랜드 세계화' 를 5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알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과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EXPO) 준비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천은 그 희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인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희망 인천의 새 미래를 열어갑시다. 좋은 생각을 함께 갖고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함께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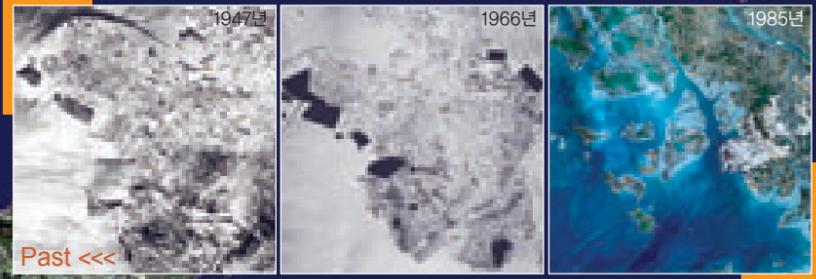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인천은 2014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를 염원하는 265만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OCA평가단으로부터 개최능력을 인정받아 인천유치가 한층 가시화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과 투자유치,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등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의회는 무엇보다 265만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 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시민들의 의사가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회기를 확충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 창 규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가 그려진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 사진제공 · 시 지적과

광활한 우주, 수많은 별들... 한줌의 흙과 바람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태초의 하늘이 열리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고 생명체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지구라는 별, 그것도 인천에서 태어나고자 유독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다. 원초 생명이 아득한 후손들에게 물려준 축복의 땅,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마주하는 곳 미추홀이기에...

바다 와 육지로만 양분됐던 인천 태고적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황토빛 대지는 곱디고운 빛깔로 옷을 갈아입는다.

갯벌에서는 이미 오래전 새로운 꿈들이 잉태되기 시작했다. 송도가 매립되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한뼘씩 다가오는 육지의 팽창에 너그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그 변화에 가슴 설레인다. 인천 공항과 항만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로 개발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무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또 육지에서는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사이 사이에 푸른 공간들이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넓혀가고 있어 살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을 비롯해 도화지구·제물포 역세권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등은 또 한번 인천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숲 안에서는 숲의 모습을 볼 수 없듯,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시의 자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우리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인천을 항공 촬영한 사진 약 3만6천매를 축적해왔다. 이 사진들과 함께 최초의 항공사진인 1947년, 1954년, 1966년, 1967년 사진도 함께 엮어 소중한 역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갤러리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의 지형변화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위성사진은 미래를 보는 거울과도 같다. 새해에 펼쳐질 또다른 계획들이 위성사진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다. 도약하는 2007년에는 더 많은 사업들로 인천의 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2006년 현재 인천의 모습

바람 속에 놓쳤던 느림의 풍경들...

여백이 많은 겨울바다는 고독을 만든다. 그래서 바다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겨울에 섬을 찾는다.
물 건너 준 배를 뒤로 하고 섬에 오르는 순간 진한 고독은 파도처럼 밀려든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자유사진가

고독이 정박해 있는 작은 포구

석모도로 가려면 강화 외포리에서 배를 타야한다. 배에 오르면 해풍보다 먼저 부는 것이 갈매기들의 날개짓 바람이다. 건너는 뱃길이라야 고작 10분 거리지만 인간은 제 힘만으로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갈매기들은 스크루를 돌리기 전에 뱃전으로 날아와 곡예비행을 보여준다. 던져주는 새 우깁을 먹고 사는 갈매기는 이제 야성을 잃어버리고 새우깁 하나 받아먹으려고 아양 떠는 애완동물에 가깝다.

뱃길에서 느껴지는 울렁이는 설렘도 잠시, 벌써 섬이다. 석모도는 해명산(308m), 상봉산(316m), 상주산(264m) 등 3개의 산으로 이뤄져 있어 '삼산면'이란 행정명을 얻었다. 섬 사람들이 흔히 돌개나루라고 부르는 석포선착장에 내리면 길이 양 갈래로 나 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섬 한바퀴를 돌게 된다.



보문사, 민머루해수욕장 등 테마가 많은 왼편 방향으로 돈다. 바로 나타나는 고갯길 하나 넘어 내리막길을 잠시 시원하게 달리다보면 어류정향과 민머루해수욕장 이정표가 나타난다. 일주도로를 잠시 이탈해 바다 쪽으로 향하면 이내 소금밭이 넓게 펼쳐진다. 그 옛날 소금맛 좋기로 소문났던 삼량염전이다. 녹슨 양철 지붕으로 뒤덮인 허름한 소금창고들이 눈에 들어온다. 겨울바다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첫 풍경이다. 경제논리에 밀려 더 이상 염부의 굵은 땀방울을 볼 수 없게 되면서 머지않아 석모도 여행의 풍경 하나를 잃게 될 것 같다.

폐염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길손을 안내한다. 왼쪽은 어류정향, 직진은 민머루해수욕장과 장구너머포구이다.

노란 그물망과 각종 어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어류정향에는 예닐곱 척의 고깃배가 닻을 내려놓고 겨울잠에 들어간 듯 고요히 정박해 있다. 철지난 포구의 모습이 연출된다. 이곳은 바다쪽으로 쭉 뻗은 지형 때문에 서해에서는 드물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웃한 민머루해수욕장은 모래 해변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광활한 갯벌평원에 가깝다. 영하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칼바람이 해변을 휩쓸고 다니며 차디찬 파도를 일으킨다. 한동안 찾는 이 없어 외로웠는지 겨울바다는 오랜만에 나타난 길손이 반가운 듯 파도를 앞세워 설새없이 말을 건다.

언덕으로 다시 오르면 먼바다까지 시야가 뚫린다. 높은 곳에서 보면 장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장구너머포구에도 고깃배들이 용기종기 모여 긴 안식을 취하고 있다. 길 잃은 갈매기 한 마리의 울음이 포구의 적막을 깰 뿐이다.

포구에는 자신들이 직접 부리는 배 이름을 간판에 적은 아담한 횡집들이 바다



를 향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손님 없는 횡집의 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쓸쓸함을 더한다.

묵은 숨 받고 새숨 주는 바다

다시 일주도로를 타고 보문사로 향한다. 보문사는 석모도의 허리께에 자리 잡고 있다. 절 입구는 5일장이 선 것처럼 늘 번잡하다. 옛, 곳감 같은 주전부리부터 햇게나무, 당귀, 가시오가피 등 약초에 이르기까지 강화 아낙들의 노점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것저것 흥정하며 토산품을 하나 둘 사는 재미도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일 것이다.

일주문에서 절 마당까지의 가파른 오르막이 만만치 않다. 가쁜 숨은 사찰에 오르기 전



Tips

외포리에서 석포리까지 평일에 30분 간격으로 페리호 선박이 운행된다. (삼보해운 032-932-3324) 차량을 싣고 갈 수 있으나 석모도 안에는 배 시간 맞춰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굳이 자가용을 싣고 갈 필요가 없다. 석모도는 '펜션아일랜드'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 펜션들이 즐비하다. 비수기인 평일에는 4인기준으로 1박에 7만원선 주말에는 12만원선이다.



에 이미 세상의 것을 모두 토해내라고 하는 듯 하다. 절 마당에 들어서면 그림 같은 향나무 한 그루에 눈길이 간다. 600년 된 나무로 인천시기념물로 지정된 귀하신 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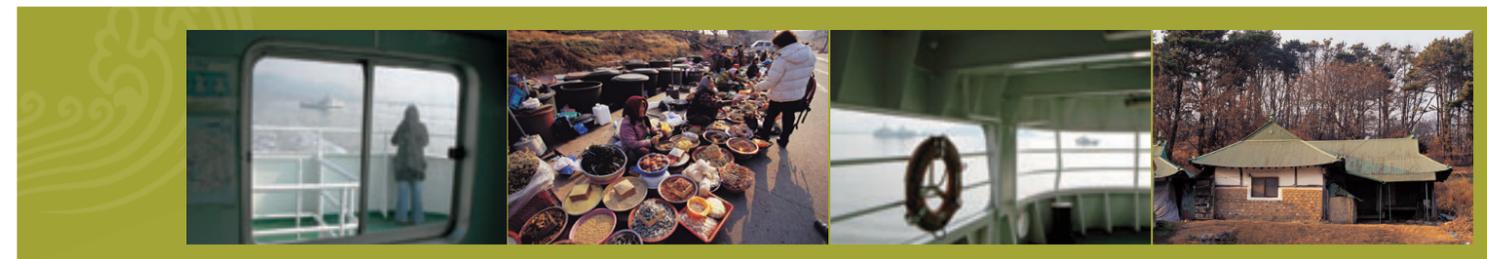
대웅전을 지나쳐 다시 또 오른다. 자꾸만 험뎠이는 마음을 더 내려놓으라고 가르친다. 400개의 돌계단을 딛고 서면 눈썹바위의 마애석불 앞에 다다른다. 후덕한 얼굴에 눈을 가느다랗게 뜬 마애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동트는 바다와 해저무는 바다를 보며 중생들의 희노애락을 생각하는 듯 하다. 눈썹바위의 마애석불에서 보는 바다는 가히 일품이다. 소송도, 대송도 그 너머로 주문도, 불음도가 눈에 들어온다.

절을 내려와 하리로 향했다. 하리는 전지현, 이정재가 출연했던 영화 '시월애'의 무대이다. 안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길 잡기가 쉽지 않았다. 몇 번의 갈림길 선택 끝에 서북쪽 끝에 있는 해안가에 다다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찾아간 바닷가는 낯선 바다로 변해버렸다. 이제 시월애는 필름 속에만 존재한다. 영화 속의 멋진 집 일마레도 태풍에 날아가 버렸고 두 사람을 연결해 주던 우체통도 없어졌다. 일마레가 세워졌던 갯벌도 왕새우양식장으로 변해 버렸다. 아쉬운대로 '시월애 식당'이라고 간판이 걸린 낚시터 매점에 들러 영화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본다. 바다를 향해 마음 속의 편지 한통을 날려 보내고 발걸음을 석포선착장으로 돌려왔다. ♪



석모도의 3색 기행

산, 바다, 포구, 갯마을... 석모도의 겨울여행은 한가로운 여유를 선사한다. 섬 기행은 자동차 일주여행,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세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자동차 기행은 섬 구석구석까지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0km 짜리 일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산행은 전득이고개로 올라 해명산에서 시작해 보문사로 하산하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석모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 '자탄풍'이다. 석모도 특유의 이동식 자전거 대여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탄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자전거 대여점 광고를 보고 현재 위치에서 전화를 걸면 자전거를 트럭으로 싣고 와 빌려주거나 반납 받는다. 하루 종일 타도 1만원 이내이다.



동북아의 희망을 여는 도시엑스포

엑스포(Exposition)는 원래 상품을 매매하고 교환하거나 문화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의미하며 일종의 대형 전시회나 설명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시가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에서 전시하려는 대상은 다름 아닌 **【인천】**, 도시 그 자체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엑스포는 나머지 두개의 스포츠 행사와는 달리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일반 전시회와는 내용과 규모에서 차별화된다. 우리시가 선정한 '도시' 라는 아이템은 기존의 엑스포와는 차별화돼 관심을 모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개최장소가 한곳으로 지정돼 집중투자가 가능하며 동원되는 관람객 규모도 스포츠 행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때문에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는 우리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이다.

인천은 동북아 거점이자 수도권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항만, 수도권과 연계된 교통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내국인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만 관광을 위해 인천을 방문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시엑스포 개최는 많은 관광객을 인천으로 불러모을 것이다..

무엇보다 엑스포가 개최되는 2009년은 우리시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09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완료, 인천대 교원공,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 완료, 소래·논현지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엑스포를 빛내줄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2009년을 인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각종 기반 시설의 완공과 더불어 인천의 문화, 예술, 관광, 환경 등 다양한 창구로 도시를 마케팅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의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엑스포에 집중되는 시기를 이용해 세계의 관심을 인천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미래로의 열림과 누림

21세기 국제정세는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 벗어나 생존과 경쟁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도시로 이동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시는 인천의 도시 경쟁력, 도시의 발전상 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했다.

글 · 김미희 본지 편집위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속의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인천인으로
 우리의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엑스포 개최는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무대로, 인천을 전시

우리시가 추구하는 도시엑스포의 콘셉트는 비즈니스와 페스티벌의 기능이 더해진 인천의 미래도시를 체험하는 종합 엑스포 형식이다. 단순히 관광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변모된 우리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했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국제비즈니스의 메카로서 우리시를 대내외에 홍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개최시기는 기온, 강우 등 기후 조건과 학생들의 방학시기를 고려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80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주 행사장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보조 행사장으로는 송도지구 3공구가 적합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시장은 Intro 구역, 주제연출 구역, 교류·체험·축제 구역, 비즈니스 구역 등 4개의 존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도시, 미래로의 열림과 누림(Closer to Future, Closer to Human)'이란 주제 아래 'U-topia, Biz-topia-인천'이란 부제가 정해졌다. 미래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환경문제를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며 미래로의 열림과 누림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조화,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인류애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대교와 인천타워 등의 상징물을 배치하고 인천관, 미래도시관, u-City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홍보관과 미래도시의 업무 공간 등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꾸며진다. 또 한국과 세계의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된다. 그밖에도 구도심 재생지역 투어 행사도 마련된다.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가정오거리, 인천대 이전지역, 송의운동장 주변 등에 소규모 홍보관을 만들어 도시 투어체험을 하도록 조성된다.



피에라 밀라노사도 엑스포에 힘 보탠다

국제 전시행사의 큰손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사(Fiera Milano SpA)가 영종지구 산업물류단지 내 약 66만㎡ 부지에 연면적 약 43만㎡의 '피에라 밀라노 인천(가칭-Fiera Milano Incheon)' 국제전시장을 건설하기로 지난해 우리시와 협약을 맺었다. 엑스포 분야에 많은 노하우가 있는 피에라 밀라노는 앞으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운영과 관련해 프로모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어질 이 국제전시장에는 가구와 패션, 건축, 의료기, 자동차 등이 전시될 예정이며 2008년에 착공해 2010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엑스포개최를 향해

우리시는 2009년 엑스포를 원활하게 준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할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어 1월 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상반기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도시엑스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법인은 의결기관인 이사회, 집행기관인 조직위원회, 고문단, 자문위원회, 범시민지원협의회, 행정지원단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며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위한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박람회장과 각종 체험관 설치 등을 맡게 된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개최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인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줄 것이다. 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엑스포 개최는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엑스포 개최 현황]

엑스포	년도	주제
대전세계엑스포	1993	새로운 도약에의 길
고양세계꽃박람회	1997	꽃과 인간의 조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998	새천년의 미소
강원국제관광엑스포	1999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흙으로 빛나는 미래
바이오엑스포	2002	생명속의 생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천만의 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06	생명의 뿌리 인삼
여수세계박람회	2012	살아있는 연안과 바다



2009년, 엑스포 + 관광의 해

우리시는 2009년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방문의 해로 공인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에 전북과 울산을 제치고 '2009년 인천방문의 해'로 선정됐다.

사업 설명회에서 우리시는 2009년을 그린 청사진으로 인천대교, 관광전차, 개항기 건축물 등의 관광 자원과 공항철도,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건설 등 관광인프라의 개선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지원받아 국내외 홍보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무엇보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를 준비하는 우리시로서는 시너지효과를 얻게 돼 두 행사 모두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2009년 인천방문의 해'는 Wide Variety(다양한 인천), Way(관문으로서의 인천), With(친구와 같은 인천)을 핵심 컨셉으로 진행된다. 경제자유지역의 미래 첨단도시, 외국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등 특별패키지 상품과 서해5도 지역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고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 관광전차도입, 해양과학관·인천항 홍보관 등을 건립해 국내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인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2009년은 '인천방문의 해'와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미래첨단도시, 관광도시 인천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우리보다 100살이나 많은 건물이에요”

인천의 옛 도심인 중구 일대 근대 건축물을 돌아보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국 근대사의 흔적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살펴본 후 옛 '일본 18은행'을 리모델링한 근대건축전시관을 방문하면 영욕의 인천근대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원초등학교 4학년 정재홍, 최성욱, 오예림, 김현아, 서동민 어린이는 자신들이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들 속에서 인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글 · 한정민 전 더클래스 기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제물포 개항 그리고 근대화의 바람

인천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근대건축전시관에 들어서자 19C 개항 당시의 인천향이 친구들을 맞는다. 조선 땅에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인천항은 새로운 근대문화가 퍼져나간 '문화발신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감리교회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내리교회,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만국공원 등이 모두 인천에 있죠? 조그만 포구에서 조선 최대의 개항장으로 성장한 제물포는 비록 한일합병 후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서구식 근대화의 최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에는 '최초'인 것이 수두룩하다. 안내를 맡은 정희순 씨가 개항 당시 인천의 혼란한 시대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도입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와 어떤 끈으로 연결돼 있는지 모른 채 암기하듯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다음 코스인 '인천의 조계'라는 거대한 디오라마와 영상 앞에 선다.

조계지란 외국인이 거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을 말한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 상인들이 몰려오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제물포 땅 일부를 빌려 쓰는 조계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한동안 지형 디오라마와 영상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아이들은 탐색기를 이용해 원하는 곳의 모습을 확대해본다. 탐색비전의 신기함에 탄성을 지를 법도 하련만 친구들의 표정은 내내 진지함을 잃지 않는다. 혹시 엄동설한에 외국인들에게 거주지를 빼앗긴 조상들의 애환을 느꼈던 것일까?



‘창(窓)과 창(窓)의 잇을 수 없는 향수여!’

이곳에선 전쟁으로 소실된 근대건축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홍이 동민이 예립이는 그중에서도 1905년 영국의 제임스 존스톤이 여름별장으로 지은 유럽양식의 석조 4층 건물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독일풍의 성곽을 연상시키는 존스톤별장의 아름다움은 이미 알려져 있다. 향토시인 최성연은 광복 직후 인천의 근대건축물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개항과 양관역정(1958)'에서 '아름다운 다각형 지붕 위 짜르르 윤이 흘러내리는 새빨간 기왓장이며, 복잡한 굴곡의 새하얀 벽면과 엇비슷이 두 쌍 세 쌍 바다를 향하여 매어달린 창(窓)과 창(窓)의 잇을 수 없는 향수여!'라며 폐허로 변한 존스톤 별장을 노래했으니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은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옛 시인이나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이밖에 1897년 건립된 영국영사관, 미국공사였던 알렌의 별장, 인천해관 등의 모습도 모형으로나마 볼 수 있다. 모두 근대를 품기했던 인천의 건축명작들인데 6·25 전쟁의 포화로 사라졌다는 설명에 친구들은 못내 아쉬워한다.

사라진 건축물 뿐 아니라 현존하는 건축물을 실제 모습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18은행을 비롯해 제물포구락부, 답동성당, 흥예문, 인천우체국 등 현존하는 건축물들을 직접 둘러본 후에 이곳에서 건물마다 얽힌 역사를 이해하면 산 공부가 된다.

당시 인천 모습이 담긴 엽서전시실에서 정희순 씨가 천장을 쳐다보라고 주문한다. “와 천장이 철판이네요...” “어? 창문은 쇠창살이네?” 이제서야 아이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건물이 시지정유형문화재인 옛 일본18은행 인천지점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모양이다.

다음은 탁본체험코너. 울룩불룩한 검은 판위에 얇은 종이를 대고 인경먹으로 쓱쓱 문지르자 인천개항장의 모습이 나온다. 조선 최대의 개항장이었던 제물포는 인천을 우리나라 교역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주역이다. 어쩌면 지금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로 자리잡게 된 것도 제물포가 남긴 위대한 유산일지도 모른다. 현아와 성욱이는 큰 의미가 담긴 개항장의 모습을 책상 유리 밑에 깔아놓겠다고 곱게 포장한다.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긴 하지만 야외에 있는 부대시설 관람을 빼놓을 수는 없다. 문 하나를 열고나가자 바로 야외휴식공간이다. 국내 최초로 자장면을 만들었던 '궁화춘', 최초의 서양식 주택 '세창양행' 등 전시관 내부에 없던 건축물이 동판으로 제작되어 선보이고 있다. 1920년대 말 중구거리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동판 건축물의 묘한 매력에 빠져있는데...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란다. 인천 옛 모습이 담긴 엽서를 선물로 받고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며 친구들은 중얼거린다.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와 자유공원에 놀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곤 했는데 그곳이 188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공원이었어요.”

11살의 다섯 소년소녀들은 이제 막 '역사속의 현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지난해 9월27일 개관 이래 현재까지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평일 단체관람객은 초등학교생부터 건축, 도시공학 등을 공부하는 대학생까지 다양하며 주말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 입장은 무료다.

개관시간

- 하절기_오전 9시 ~ 오후 7시
- 동절기_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휴관일_매주 월요일

문의_760-7549

2007년 달라지는 시정 알아두면 BEST LIFE~

을 통해, 다양한 시책 사업들로 동북의 허브도시로 더 높게 비상하는 'Fly Incheon' (플라이 인천)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시는 국제도시, 명품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들을 새롭게 다듬고 추가했습니다. 2007년은 한 층 더 발전된 삶을 영위하는 Incheoner(인천인)가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 인감 대리발급시 통보시스템 운영(1월)

본인 인감을 대리인을 시켜 발급받고자 할 때 문자 전송을 신청한 민원에 한해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 또는 휴대폰 SMS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3

☞ 주민등록표 원장보관지 안내서비스(7월)

전국 읍·면·동 단위로 보관했던 주민등록표 종이 원장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 원장 보관지를 몰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조회가 가능해지고 안내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33

☞ 여권택배제 실시(2006년 말)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교부를 위해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과 연계해 여권택배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여권발급 신청 후 택배신청 시(수수료 3,000원)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70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연령 상향조정(2007년 법개정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가 국외 여행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때 기존 만18세 이상에서 만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70

☞ 민방위대 편성연령 및 교육·훈련시간 단축(1월)

민방위대원의 편성연령이 기존 만20~45세에서 만20~40세로 줄고 교육시간도 1~4년차의 경우 연간 8시간 집합교육에서 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5~6년차는 현행대로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이 운영되며 7년차 이상의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내용도 집합식 강의 위주에서 체험 및 실기위주로 변경됩니다.

문의 | 시 재난관리과 ☎ 440-4287~90

사회복지 분야

☞ 최저생계비 인상(1월)

최저 생계비가 현실생계수준을 감안해 인상됩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월/원)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월/원)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0

☞ 쪽방거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대책 마련(1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지역 주민과 노숙자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쪽방거주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자원봉사+1, 3+1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심리상담 활동을 강화해 특성에 맞는 보호지원을 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50

☞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기준 완화 (1월)

무주택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가구는 5,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해 용자해드립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이하의 저소득무주택 세대주이며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0

☞ 자원봉사자 지원확대 (2007년 중)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봉사를 위한 '작은 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상가들을 대상으로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해 자원봉사자에게 5~30%의 할인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또 연간 봉사활동 평가를 통해 봉사왕을 선정해 해외시찰 기회를 마련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71~5

☞ 사회복지공무원 후견인제도 실시 (1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하나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의사능력부족으로 주변인의 도움 없이는 정부터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후견인이 되는 '저소득층+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1 : 1 맞춤형 후견인제도를 도입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3

☞ 장수수당 지급 (1월)

우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만90세, 만95세, 만100세인 경우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만90세는 연 30만원, 만95세는 연 50만원, 만100세는 연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58

☞ 상담기관 포털사이트 운영 (1월)

현재 분산 운영되던 11개 상담기관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통합 포털사이트 '다시한번(Think)'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think.incheon.go.kr>)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66

☞ 자원봉사 소식지 정기발간 (3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보와 소식을 엮은 자원봉사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이 월간소식지에는 자원봉사 주요시책, 우수자원 봉사단체 소개, 전문지식과 미담사례 등이 실립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71~5

☞ '129 기동반' 신속한 현장방문상담 (1월)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긴급지원 전용 차량인 '129 기동반'을 군구에 배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0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운영 (3월)

경제적으로 또는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가족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자녀교육, 구직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43

☞ 장애인복지관 2개소 추가건립 (2007년중)

기존에 6개소(인천·남동·부평·서구장애인복지관, 노를담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로 운영되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개소가 추가로 건립됩니다. 추가로 건립되는 남구장애인복지관은 7월에 중구장애인복지관은 8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0

☞ 장애인복지일자리 창출 (1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리시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고용기간은 7개월이며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33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도우미, 주간보호센터 케어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등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0

☞ 건강가정 및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확대 운영 (1월)

맞춤형 건강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납니다. 또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등 결혼이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42

☞ 치매노인·Care사업 확대운영 (1월)

우리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700명과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등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5,000명이며 치매노인까지 확대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2

여성·아동분야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확대 (1월)
국가·지자체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치료비 신청 시 행위자(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했습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94

Ⓢ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인상 지원 (1월)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52만5천원에서 55만천원으로, 의료비는 연간 2백40만원에서 연간 2백52만원으로 인상 지원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22

Ⓢ 국내입양 장려금 지원 (1월)
국내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입양수수료를 1인당 2백만원 지원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22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확대 (1월)
저소득층 맞벌이, 결손가정, 극빈 가정의 자녀에 대해 학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교실을 기존 50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23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 (3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00%까지 확대됩니다. 지원아동도 1만9천여명에서 2만4천5백여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늘어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80

Ⓢ 셋째자녀부터 보육료 지원 (3월)
우리시에 거주하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자녀 중 인천소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가 기존 800명에서 1,800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금도 조정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80

Ⓢ 입양아동 무상보육 지원 (3월)
입양아동이 취학 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46명에 대해 연령별 보육 수납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680

보건·위생 분야

Ⓢ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 (1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이 4천4명에서 7천명으로 늘어나고 검사항목도 초음파, 기형아, 풍진, 임신성당뇨 등이 추가됩니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기존 708명에서 1,844명으로 늘어나고 도우미 서비스 기간도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납니다. 그밖에도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신생아용품비 1인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45

Ⓢ 동네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실시 (7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BCG, B형간염,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등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대상은 만0세~6세 아동에 해당됩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53

Ⓢ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1월)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갈비, 등심, 불고기 등)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식육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70

경제·교통 분야

Ⓢ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007년 중 착공)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신종 업체 확산으로 침체됐던 동네슈퍼 및 재래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올해 착공해 내년 초 개장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 440-2791, 2795

Ⓢ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3월23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오는 3월 23일 개통됩니다. 정거장은 인천국제공항역-공항화물터미널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인천1호선환승)-김포공항역(서울5호선환승)이며 12분마다 운행됩니다. 인천공항~김포공항 간 30분, 인천공항~계양역 간 25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 440-3874



Ⓢ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구축 (하반기)
지하철과 같이 버스의 정류소 도착시간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BMS)이 확대 구축되어 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현재 일부노선 20개 정류소에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00개소로 확대합니다.
문의 | 시 교통기획과 ☎ 440-3873

Ⓢ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하반기)
현재까지 버스업체에서 시로부터 버스노선 면허를 받아 자체 운영해 왔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노선관리, 수입금 공동관리, 운행성과 및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 등으로 시민의 교통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882

Ⓢ 버스정류소 레드존 설치 (6월)
버스정류소 주변에 자가용이나 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시민들의 승·하차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정류소에 레드존(Red-Zone)을 시범 설치합니다. 레드존 표시는 버스의 원활한 정류장 진입으로 운행 속도가 빨라지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 440-3917

Ⓢ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무료실시 (1월)
여객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를 내야했던 정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문의 | 시 교통관리과 ☎ 440-3724

주택·지적 분야

Ⓢ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1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40% 공정 후 분양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문의 | 시 주택건축과 ☎ 440-3816

Ⓢ 인터넷청약 의무화 (2006년12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는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됩니다.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문의 | 시 주택건축과 ☎ 440-3816

Ⓢ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전환 (4월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2007년 4월 5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됩니다.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의무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는 올해부터 새 주소안내시스템을 통해 안내됩니다
문의 | 시 지적과 ☎ 440-3472~5

상수도 분야

Ⓢ 수도물 품질인증제 개선 (1월)
'수도물 품질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직접 찾아가 수도물 관리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급수시설 관리방법과 개선방안을 안내해 줍니다. 특히 다중 시설 등 단체 접수할 경우 검사 후 수도물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 720-2226

Ⓢ 수질 검사항목 확대 (1월)
기존 총130개의 검사항목 중 우리시 자체 검사항목에서 새로운 검사 등으로 대체하는 등 총 135개 항목으로 확대 검사해 수질 감시를 강화합니다. 무기물질, 소독부산물, 심미적 영향물질, 유기물질 검사 등 17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 720-2223

Ⓢ 역류방지밸브 설치 (1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물 역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합니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720-2121~5

환경 분야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1월)
악취관리지역의 소형 악취배출업소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을 비용의 70%정도 지원합니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525

Ⓢ 남동산단 상설 환경감시단 운영 (1월)
남동산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감시단은 취약시간대 감시활동, 합동단속, 환경오염행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됩니다. 악취무인감시시스템을 10개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4개소에 설치해 24시간 원격 환경감시망을 운영합니다.
문의 | 시 공단환경관리과 ☎ 440-3694





청라, 첨단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꿈틀

IT 산업과 함께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을 4대 전략사업으로 정한 우리시는 첨단 부품소재와 관련된 R&D센터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 청라지구에 인천 하이테크파크(Incheon Hi-Tech Park-IHP)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한국형 디트로이트를 꿈꾸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우리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조건부 원안이 승인되면서 Hi-Tech Park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청라지구 내 화훼단지로 예정돼 있던 지역 약 92만㎡를 'R&D 및 첨단산업단지'로 개발 계획변경 요청을 재경부가 공식 승인하면서 총 145만여㎡로 산업시설용지가 확대됐다. 2년여간 이 사업에 공들여온 우리시는, 이날 중앙부처 각급 장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 Incheon Hi-Tech Park조성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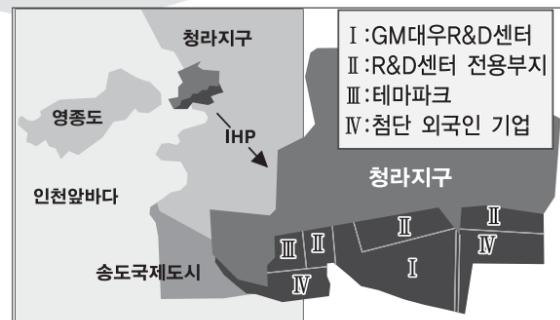
우리시는 2004년 당시 GM대우를 설득해 중국 상하이에 설치하려던 R&D 센터를 청라지구(약 52만㎡)에 유치해 2007년 9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또 이번 개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기존 약 52만㎡를 제외한 약 92만㎡중 약 36

만㎡에는 전자·전기 등 IT관련 기업이 유치되며 약 52만㎡에는 자동차부품 등 외국 첨단기업들이, 테마파크 약 3만㎡에는 자동차 박물관과 종합 전시장 등이 2011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과는 달리 친환경적 산업단지로 쾌적한 도시형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Incheon Hi-Tech Park가 조성되면 국내 최첨단 산업단지가 청라지구에서 육성될 뿐 아니라 막대한 수출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로 청라지역은 물론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편 GM대우가 지난해 10월 인천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KD센터(자동차부품 포장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는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수출 기반을 갖추게 됐다. 2011년 Incheon Hi-Tech Park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시가 동북아에서 자동차 관련분야로는 독보적인 R&D센터와 생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시 과학기술과 (440-2812)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줄까 말까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자식들만 남았는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버지 속을 꽤 썩였는데, 아버지께서 혹 유언으로 저만 제외시켰다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

A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자식들 다 크면 이제는 어떤 손가락은 더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프기도 하고, 아예 안 아픈 손가락도 생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대책 중 하나는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고, 달리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 유언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상처하고 혼자서 20년을 살아오신 80세의 '멋쟁이(별명)' 할아버지는, 딸 1명과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시가 2억원)과 1억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이 전 재산입니다. 유언없이 지금 돌아가시면 딸과 아들들이 각 1억원씩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할아버지 집 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식사를 챙기며 거의 간병인 역할을 해 왔고 아들1은 며느리의 등쌀에 집에 오는 것조차 꺼려해 명절날만 잠깐씩 얼굴만 비추고 있습니다. 아들2는 이혼하고 폐인

이 되어 술 마시고 찾아와 통장 내놓으라며 행패만 부립니다. 멋쟁이 할아버지에게 이 자식들이 똑같이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은 딸에게 주고, 예금통장은 아들1에게 주고, 아들2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들2가 유언에 승복하지 않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아들2도 법정상속분 1억원의 1/2인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상속인의 상속권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멋쟁이 할아버지의 세 자녀가 모두 속만 썩여 왔다면 "늘그막에 벗이 되어준 옆집 할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유언은 유효하지만, 세 자녀는 할머니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인 각 5천만원씩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없이 충견 땡칠이만이 멋쟁이의 임종을 지키게 된 경우, "땡칠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종종 애완동물에게 전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하여 해외토픽에 오르곤 하지만, 이러한 유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가 되어 세 자녀는 유류분이 아닌 상속분 1억원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_법무법인 로시스(861-5511)

법률용어 해설



- ①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간에는 균등한 비율이지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자식이나 부모)의 상속분보다 1/2을 가산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제 낳으시죠! 우리시가 키우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차에 접어 든 최성은(45세·주안동)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처음 불임클리닉을 찾았을 때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5년에 걸친 불임시술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가 돼 아이 갖기를 포기한 채 각각의 일을 즐기고 있다. 6살짜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김은주(35세·계산동)씨는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둘째 갖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아이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 조성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다 부부가 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장애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등 저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기 낳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 전국 최초로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셋째 이후 3세 이하의 아동에게 모두 34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한 소득에 따라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



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두 자녀 이상 교육비와 보육비 등도 지원되고 장애아가 있는 가정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13세까지 장애아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농어촌은 지리·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어가의 5세 미만의 자녀 보육료와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24시간 보육료 지급을 비롯해 방과 후 학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을 지원하고 새해부터는 입양아 양육수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시 교육청 교육지원과 420-8332)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인프라 확충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이 낳기를 꺼려하거나 일 하기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의 이 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리시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공보육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2008년까지는 모든 보육시설에 확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추진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가 확대되면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시설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공립유치원도 종일반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공연장에는 육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 아기 갖기 힘든 부부 지원

우리시는 지난해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신부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저소득층의 분만 의료비지원 등을 펼쳐왔다. 이 사업들은 올해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된다.

공공기관에는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모유수유실은 8개소에 불과하다. 올해는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모든 군·구청 및 보건소에 설치비가 지원된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검진 항목도 확대된다. 임산부는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을때 추가로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에게는 신생아 난청검사가 추가된다. 또한 군·구 모든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해 더 많은 임산부들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건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우리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세대의 임산부에게 출산 관련 용품을 제공하던 것을 확대해 올해는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신생아용품비 3만원을 지원한다.(시 보건정책과 440-2740)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나 양육 때문에 아이 낳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들에게 우리시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정해년이 될 전망이다. ☺

굿인천 굿뉴스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우리는 종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부터 해마다 20여대씩 늘리기로 했다. 올해 7억4천여 만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40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의 40%수준으로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한 20대가 1일 16대씩 돌아가며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2

수돗물 '미추홀 참물' BI 선포식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9일 삼산월드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인천 수돗물의 공식브랜드인 '미추홀 참물' 탄생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BI(Brand Identity)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천출신 2006년 미스코리아 선 박사론씨가 '미추홀 참물'의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상수도본부는 작년에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843개 이름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와 인터넷 투표를 거쳐 '미추홀 참물'을 브랜드로 최종 결정했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 720-2035

효성동~부천 도로 개통



우리는 지난달 13일 계양구 효성동과 작전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 준공식을 가졌다. 2003년부터 총 1천119억 원을 투입해 개통한 이 도로는 서인천 IC~효성동~작전동~서운동~부천을 잇는 총 연장 8.8km 도로 가운데 일부인 2.14km 구간이다. 1999년 부천~서운동~작전동 2.87km 구간을 완공했고 이날 개통 이후 남게되는 효성동~서인천IC 3.79km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병행해 오는 2013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문의 | 시 종합건설본부 ☎ 440-5221

행복한 가정상담원 배치 확대

우리는 일부 동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제도를 오는 3월

부터 강화, 용진군을 제외한 시내 119개 동으로 확대한다. 상담원은 가계 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나 노인, 모·부자가정, 취업, 아동 등 다양한 가정문제를 상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이나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주기도 한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 440-2714

'인천관광 100경' 선정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인천관광 100경'은 시내 31곳, 강화지역 21곳, 백령·대청·연평지역 14곳, 영종지역 9곳 등 인천의 관광명소가 총 망라돼 있다.

공사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시민공모 등을 통해 170여 곳의 후보장소를 접수한 뒤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을 통해 역사, 보존, 인지가치, 흥미, 체험가치, 희소, 지역가치, 지역균형발전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관광 100경'을 홈페이지(www.into.or.kr)에 게시했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 220-5000

뉴스 Zoom In

우리시 '상복' 터졌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실시한 '지자체 행정정보화 활용률 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부와 자치정보화조합 합동으로 지난해 10~11월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는 무방문·무서류 대민 인터넷 서비스 확대, SMS를 통한 민원처리 과정 공개, 시장의 행정정보 활용도, 전담인력 확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중앙평가'에서 우리시가 시·도평가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700여개 노인일자리프로그램에서 추출된 23개의 우수 일자리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는 우리동네환경지킴

이사업(전국1위), 노-노케어사업(전국5위), 실버택배(전국4위)사업 등이 선정됐다. 그밖에도 지난 한 해동안 우리는 지자체 소비자행태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평가에서 광역단체 부문 1위로, 음식문화개선 전국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국정시책추진 최우수 광역시로, 지방전자정부 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로, 복지사회 으뜸도시로 중앙에서 3년연속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 우리시상수도사업본부가 '국가품질경영대회 환경경영부문 대통령상'을,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는 등 우수한 행정서비스 점수를 받았다.

문의 | 시 정보화담당관실 ☎ 440-2322

굿인천 굿뉴스



남동정수장 시민공원 개장

우리는 남동정수장과 장수배수지 일대 약1만5천㎡의 부지에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한다. 공원에는 생태연못, 휴게광장, 건강마당, 족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을 갖췄고 소나무, 꽃사과, 백철쭉 등 14종 1만8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 주변 남동정수장 내에는 물 홍보관, 수돗물 PET병 자동생산시설 등이 있어 물 체험교육도 가능하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 720-2153



북구도서관 평생학습 대상 수상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주유돈)이 지난해 12월15일 제3회 전국 평생학습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벌여 교육기관·단체부문 대상에 북구도서관을 선정했다. 북구도서관은 만학배움터 사랑방 및 금빛평생교육단 운영, 사할린동포 적응훈련 교육,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회 제공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의 | 시 교육청 ☎ 423-3303

김황태 선수, 자매도시 방문

양팔없이 달리는 마라토너 김황태 선수가 지난해 12월 10일 미국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완주를 마치고 우리시와 자

매도시인 호놀룰루시를 방문했다. 인천출신의 김 선수는 하와이 인천향우회(회장 이영배)회원과 무피 헤네만 시장을 만나 자매도시의 후호를 다졌다. 김황태 선수는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인사말을 전했고 이에 헤네만 시장은 "역경을 딛고 끝까지 완주한 김선수의 참가로 호놀룰루 국제 마라톤대회가 더욱 빛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30



숫자로 보는 인천소식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지원 확정

오는 2013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검암역~주안역(경인전철 환승)~시청(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인천대공원을 연결하는 총연장 28.9km 노선에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정부보조 1조2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9천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08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시내 9개 도로 개통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9개가 올해 개통된다. 우리는 올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연결로 등 9개 도로(9.62km)의 공사를 마무리해 개통할 방침이다. 동구 송림 4동 재개발지역 진입로(0.78km, 폭 40m)는 1월 개설되고 논해로~학익지구간 도로(2.5km, 폭 30~35m)는 2월에 뚫린다. 중구 신흥동~동국제강을 잇는 도로(1.29km, 폭 50m)는 6~7월에 2단계로 개통, 확장된다. 하반기에는 검단을 포함한 서구, 부평구지역 도로가 집중 개설된다. 마장사거리~산곡사거리를 연결하는 길주로는 9월에 폭 35m도로로 확장되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연결로(2.4km, 폭 20m)는 11월 개통 예정이다. 검단산업단지~오류농장간 1.3km구간 도로(폭 20m)와 석남주공~봉수대길 연결로 0.54km구간(폭 35m)은 각각 12월에 개설된다.

2
지난해 9월 말, 인천지역인구 265만2천610명
지난해 3·4분기 중 인천지역 인구는 2천100명 증가해 9월 말 현재 26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인천지역의 전입 인구는 3만8천867명이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인구는 3만6천767명으로 2천100명이 증가해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인구는 265만2천610명(남자 134만3천784명, 여자 130만8천826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82만1천189대

2006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82만1천189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59만7천722대, 승합 6만4천692대, 화물 15만4천637대, 특수 4천138대이며 이륜자동차는 5만5천434대이다. 군·구별로는 중구 4만1천51대, 동구 2만3천662대, 남구 12만6천275대, 연수구 8만6천18대, 남동구 12만6천417대, 부평구 15만9천820대, 계양구 10만131대, 서구 12만8천583대, 강화군 2만3천325대, 용진군 5천907대 등이다.

2,652,610

821,189

굿인천 굿뉴스



㉟ '아이 돌보미' 사업 도입

우리는 오는 4월부터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에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을 통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40명을 확보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할 계획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일반은 5천원, 국민기초수급가정이나 모·부자가정은 1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등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아이 돌보미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가정청소년과 ☎ 440-3940

㉟ 버스정류장에 레드존 설치

인천시내 버스정류장에 버스들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택시나 승용차 등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레드존(Red-Zone)'이 설치된다. 오는 3월부터 시내 버스정류장 10곳을 선정해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적으로 레드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레드존은 버스전용차로 중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80m 구간(폭 3m)

에 바닥이 적색으로 포장되며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나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주정차할 수 없다.

문의 | 시 대교교통과 ☎ 440-3880

㉟ 경로당이 문화공간으로

인천지역 경로당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올해 시내에 대규모 경로당 3곳을 신설하고, 기존의 낡고 오래된 경로당 121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구 화수동(연건축면적 1천500㎡), 남구 용현4동(1천214㎡), 서구 가좌 2동(1천320㎡)에 신개념 경로당을 지을 예정이다. 이들 경로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중대형 시설로, 정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노인문화활동이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3950



㉟ 인천의제21,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상임회장 : 이홍우)가 환경부와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06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생태체험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맺기 사업으로 지난해 12월20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인천의제21은 6개 구의 기초의제(계양, 남구, 남동, 부평, 서구, 연수의제)와 공동으로 생태기행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인연 맺기 사업을 총 7회 진행했다. 이 행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생태체험의 형식으로 환경권을 함께 누리고 사회복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의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 433-2122

홍일표 정무부시장 취임



홍일표(50·洪日杓) 정무부시장이 지난달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시작했다. 홍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급성장하는 인천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부처와 시의회,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인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인천에서 법조인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인천시 현안을 이룬 시일 내에 파악해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요약

- 충남 홍성 출신
- 홍성고·건국대 법대 졸업
- 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법·인천지법 판사 등 역임
- 법무법인 서해 대표변호사
- 한나라당 남구갑 당원협의회회장 역임

경·제·자·유·구·역·소·식

서울의대·가천의대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환균)은 지난 달 27일 송도신도시에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및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와 각각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는 송도 5, 7공구 약 247만㎡의 부지에 웰빙, 전문치료, 동서통합의학, 신약개발 등 7개 연구센터와 의료관광, 맞춤형신약, 첨단의료기기, 첨단유전체이식의학 등 4개 클러스터를 갖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대는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의 유전체 분야 앵커연구소인 '동아시아유전체센터'를 구축하고 가천의대는 첨단의료기기 분야 앵커연구소인 뇌과학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미 AT사 송도에 아시아본부 설립

경제청은 RFID(전자식별)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에일리언 테크놀로지(Alien Technology·AT)사와 올해 송도에 아시아본부를 설립하기로 지난해 12월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8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AT사는 송도 u-IT 클러스터 내 약 1만6천5백㎡의 부지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해 RFID 태그 및 리더기 제조·판매 시설, R&D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운북지구 합작투자협약 체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 관련, 지난해 11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인 리포 컨소시엄과 합작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

결의 후속조치로 설립자본금 718억1천700만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운북 복합레저단지는 총 274만여㎡ 규모로 오는 2008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약 185만㎡에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약 89만㎡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거, 업무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노옵틱스, 제조·연구시설 짓는다



LCD용 광학필름 전문제조업체인 나노옵틱스가 송도국제도시에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경제청과 2천만 달러의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했다. 나노옵틱스는 호주의 레이튼 프라퍼티 등 외국 투자기업들로부터 2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약 1만㎡ 부지에 연건축 면적 약 8300㎡ 규모의 LCD용 광학필름 생산시설, 연구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

송도에 관광수로 건설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에 약 39만㎡ 규모의 중앙공원과 관광수로가 건설된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시행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오는

2009년까지 총 2천여억원을 들여 단지 내에 친환경적인 수로를 테마로 한 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공원은 대형 수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초대형 수족관, 전망테크, 보트하우스, 박물관, 조각공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수로의 규모는 길이 1.8km, 수심 1.5m, 너비 12~110m이다. 수족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약 5만㎡에 7천500t 규모의 수조를 갖추고 전 세계의 진귀한 바다, 호수 생태계를 보여주게 된다.

송도 1, 3공구 국제업무단지 기공식



경제청은 지난달 8일 송도에서 1, 3공구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된 송도 1, 3공구는 총 684만여㎡ 규모로, 국제업무단지(약 572만㎡)와 18홀 규모의 골프장(약 99만㎡) 등이 들어선다. 국제업무단지에는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외국인학교를 비롯해 중앙공원, 외국인 병원, 업무·주거·상업시설 등 송도지구 내 핵심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경제청은 1, 3공구 기반시설공사에 총 5천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1공구는 2009년, 3공구는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시의회소식 2006년 의정 결산

1. 의정활동 환경 및 여건

동시지방선거 및 제5대 의회 출범 - 33명(지역구30명, 비례대표3명)으로 구성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가 7월 출범했다.

유급제 시행 원년 - 그동안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시행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회기일수 변경 - 회기일수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의일수를 120일에서 140일이내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상시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일문일답방식 도입 - 그동안 시정질문에 있어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에서 일문일답이 우선하도록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문위원 강화 등 - 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이 변경되어 특별위원회 등을 담당할 전문위원이 일부(4급1, 5급2) 증가되고, 비전임계약직 4명을 채용함으로써 입법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운영성과

■ 안건처리현황

9회 120일 221건의 의안 처리

제143회 임시회에서부터 제151회 2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9회 12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22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149건, 수정가결 54건 등 209건을 처리하였으며 6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6건은 폐기하였다.

■ 의원발의현황

민생조례 발굴 제·개정 14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기관을 확대하는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활성화 하였다.



■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107건, 처리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110건 등 총 313건이 지적되었다. 이는 2005년의 292건보다 21건이 증가된 수치이다.

시정질문

제144회, 제149회, 제150회, 제151회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 280건을 통하여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방행정감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

■ 청원·진정 등 민생현안 해결

청원 및 진정 처리현황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7건(채택5,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의 청원을 처리하고 주거환경정비, 교통지도단속, 쓰레기 문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진정사항 94건(완료52, 철회1, 불가 32, 처리중9)을 처리하였다.

■ 예산집행 감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7.14~2007.7.13 11인)활동

주요예산집행상황보고 - 제146회, 제150회 2회에 걸친 주요예산집행상황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낭비사항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결산 심사 - 2005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등 5건을 시정 촉구, 교육청에 대하여는 학교신축비 등 과다 불용처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운용대책 강구 등 5건을 시정 촉구하였다.

예산 심사 - 2006년도 제 1, 2, 3회 추가경정예산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 4,906,190,970천원, 교육청 1,745,915,975천원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되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심사활동을 펼쳤다.

■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2006. 7. 14 ~ 2007. 7. 13. 9인)

96년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

시의회소식 2006년 의정 결산



령과 윤리실천규범이 있었으나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3차의 회의를 통하여 의원윤리실천 규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상설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006. 10. 1 ~ 2007. 9. 30. 9인)

집행부 조례 290건, 의회 11건 등 인천광역시 301개 조례 4,661개 조문을 검토하여 상위법령과의 중복조례, 부적정 위임조례, 불필요한 집행조례를 발굴했다. 1단계 정비사업 및 4차회의를 통하여 33개 조례 167개 조문의 중복사항을 발굴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결의문 채택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촉구 결의안

1968년 12월 개통된 이래 경인고속도로는 38여년간 유료로 운영되어 시민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즉시 폐지할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개선하였다.

중국의 고구려사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중국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 측에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역사왜곡을 적극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4아시아게임 인천유치를 위한 결의안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265만 인천 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 전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 성원을 모아 중앙정부와 각 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제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토록 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서류제출요구법규 개정 건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법규 개정 건의, 지방의회 기능직(속기사)의 일반직화 건의, 지방의회 근무공무원의 의사수당 인상, 규칙등에 대한 조례위법범위 준수여부 검토규정 설치건의,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 현지시찰 등

인천대교 및 경제자유구역 건설현장, 인천항만공사(남항, 북항),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사업 현장, 검단신도시 등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선린 우호 국제교류

자매도시와의 상호 선린우호교류 및 동북아 거점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멕시코 메리다시와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기획행정위원회 의원)
- 이민사박물관 건립관련 유물 수집 협의 등 중국 중경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방문(상무위원회 부주임 趙公卿 등 7명)
- 인도네시아 말루꾸주 시찰단 방문 (말루꾸(Maluku)주 시찰단 13명)

■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의회 추진

인터넷 생방송 실시 -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부터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시민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느낄수 있는 생동감 있는 의정

홍보 효과를 높였다.

모의의회, 본회의 방청·견학 - 모의의회, 본회의 방청, 견학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 모의의회 : 구월여중 등 5개교 167명
- 본회의 방청 : 부일여중,꿈나무정치현장체험단, 일반시민 등 721명
- 견학 : 단봉초등학교 등 6회 349명

3. 2006 의정활동의 평가

2006. 1. 19(목) 제143회 임시회로 시작되었던 의사일정이 12. 21(목)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의원발의와 조례정비 특위를 통한 입법기능 활성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 수행하였다. 또한 청원·진정·현지시찰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시 집행기관의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조정해주고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 처리기관으로의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 하였다.





영상 미디어 산업의 왕국 버뱅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갖춘 우리시는 이미 '국제'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국제도시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우리시는 총 9개국 16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맺으며 도시 상호간에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등 특별한 친분을 쌓아 왔다. 자매·우호 도시를 알아가는 것은 역으로 우리시를 더 잘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제공 · 시 국제협력관실

1961년 우리시와 처음 언니 동생의 관계를 맺은 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버뱅크(Burbank)시(市). 당시 부평문화원의 원장이었던 이창근 씨가 문화원에 비치할 문화서적을 미국 각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버뱅크시와 인연을 맺게 됐다. 버뱅크시는 흔쾌히 부평도서관에 5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고 같은해 12월 18일 미약하나마 구두 상으로 자매도시로 체결됐다. 비록 자매결연증서는 없지만 우리시와 최초로 자매도시를 맺은 버뱅크시 홈페이지에는 일본, 스웨덴 등의 도시들과 함께 명실상부한 자매결연도시로 인천을 소개하고 있다.

LA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버뱅크는 1867년 LA의 부동산 갑부인 치과의사 데이비드 버뱅크(David Burbank)가 넓은 대지를 사들여 목장을 세웠다. 이곳에 철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마침내 1887년 5월 1일, 최초의 개발자인 그의 이름을 따 도시의 이름을 버뱅크로 지었다. 이후 버뱅크시는 1911년 시로 승격됐으며 현재 면적 44km², 인구 10만여명의 도시가 됐다.

초장기 버뱅크에는 '세계 미디어왕국의 수도'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비롯해 워너브라더스, 콜럼비아 픽처스, 월트디즈니사 등 메이저급 방송사와 영화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또 허리우드대학을 비롯해 각종 라이브 극장과 공연장, 박물관 등 영화 관련 교육과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또 영화 '가위손', '크리스마스의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팀 버튼 감독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1912년 미국의 우주 항공기기 제조사인 록히드사가 버뱅크의 농장지대에 비행기 공장을 세우면서 미 서부지역의 주요도시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다.

버뱅크시는 1961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공무원 방문연수를 비롯해 2002 한·일 월드컵 방문, 문화 예술품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시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시의회 최병덕 기획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시 대표단이 버뱅크시를 방문해 교류협력증진방안 등을 협의했다.(<http://www.ci.burbank.ca.us>)

악수는 사교활동의 문

인사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관습이다. 나라마다, 혹은 지위에 따라서 그 방식과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자칫 잊고 지나치기 쉬운 격식과 방법을 좀더 알아둔다면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악수는 비즈니스 사회의 격식과 사람간의 친근한 정을 함께 담고 있는 인사법으로 사회활동과 사교활동의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악수를 사양하는 것은 커다란 실례로 형식적으로라도 응해야 한다. 악수를 할 때에는 정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표정과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수는 상호 대등한 의미이지만 먼저 청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등이다. 악수에도 방법이 있다.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해야 한다.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하는 악수는 큰 실례가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은 채, 손을 팔꿈치 높이만큼 올려서 잠시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았다 놓는다. 이때에도 형식적으로 손끝만 잡는다거나 또 자기 손끝만을 내미는 일은 실례가 되고, 너무 세게 잡아서도, 또 잡은 손을 지나치게 흔들어서도 안된다.

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악수에 대비해서 오른손에 들었던 물건을 왼손에 미리 고쳐 들고, 왼손잡이도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예의이다. ♪

자료제공 · 파라다이스호텔 인천(762-5181)



악수하며 절하기?

간혹 동양인들은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악수가 바로 서양식 인사이므로 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자칫 비굴한 인상이 심어줄 우려가 있다.

상대방이 웃어른이라면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른의 뜻에 따라 악수를 한다. 이때에도 악수하며 허리를 굽힌다거나 두 손으로 손을 감싸 안을 필요는 없다. 특히 외국인과 악수할 때는 상대방이 '절'이라는 인사법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허리를 꼳꼳하게 세워 그야말로 상호 대등하게 악수를 나누는 것이 좋다.



동북아의 두바이를 꿈꾸는 송도국제도시

글 · 존 하인즈 게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한 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홍콩과 물류 비즈니스의 허브로 성공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점을 본받아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꿈이 담긴 말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동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가 최대의 화두다. 사막과 바다를 매립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물류, 관광, 금융허브로 만든 두바이의 열정과 추진력, 리더십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송도국제도시 역시 동북아 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뛰어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서울과는 지하철로 통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2009년 인천 대교가 완공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 역시 큰 편이다. 게다가 첨단 IT산업을 위시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우수한 노동력은 한국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게일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건설과 함께 지난 2002년 당시 매립도 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송도에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173만평의 부지 내에 2015년까지 총 24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상업, 주거시설, 국제학교와 병원 등을 건설하는 민간개발 프로젝트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앵커 프로젝트가 될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국제학교와 컨벤션센터가 이미 착공됐으며, 중앙공원과 송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65층 규모의 아시아트레이드 타워 등이 곧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모건스탠리가 국제업무지구에 3억 5000만불의 투자를 합의했으며, 이후 다른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일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삶의 질을 갖춘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다. 중앙공원을 비

롯해 40% 이상의 충분한 녹지와 쇼핑 및 문화공간, 골프장, 국제학교와 병원 등 완벽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도심공동화 현상 없이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송도는 또한 최고수준의 IT인프라가 구축된 유비쿼터스 도시가 될 전망이다. 2014년까지 일반가정은 물론 학교, 회사, 거리 등 어느 곳에서든 IT인프라로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인 'u-시티'가 탄생하는 것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개발사가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완공 후에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 엄청난 책임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인천을 현재 국내 3대 경제자유구역 중 선두주자로 만든 정부와 인천시의 개발의지와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송도가 동북아경제중심도시의 주도권을 놓고 상해,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제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 제조, 물류, 관광업종에 국한된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혜택을 서비스와 금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정비법의 규제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말 그대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두바이의 성공비결은 프리 앤드 심플(Free and Simple)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 규제 없애거나 최대한 단순화시켰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가 두바이로부터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개발사업자의 추진력과 인천시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송도국제도시는 머지 않은 미래에 두바이 못지 않은 동북아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존하인즈 대표 이력

- 1958년 미국 보스턴 출생
- 보스턴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
- 1999년 게일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취임
- 2002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 대표 겸임
- 하버드대학 역사학 전공



눈싸움 하러 가자
눈싸움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볼은 발그스름해져서 그래도 좋고 푹푹 찜찜하~~ 함박웃음 짓는 우리 아들.
신용자 | 남구 관교동

김치~찰칵

소중한 가족여행

요즘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바쁜 시기이다.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1월에 강원도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에 부모 마음이 더 행복하다. 대관령에서 눈사람이 착하다고 머리를 다독여 주는 딸의 모습..~

이은정 | 부평구 십정2동

별난박물관

별난박물관에 갔더니 정말 별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겨우 입고 찰칵. 별난 우비 우산이죠?

방순주 | 부평구 산곡2동

한중문화관체험 땃고와~

세 살난 아들 녀석하고 저희 가족은 가까운 한중문화관을 찾았습니다. 전시관 한 칸에서 중국문화·차 및 의류 체험을 할 수 있더군요. 아들 녀석이 의상 협조 좀 했으면 정말 완벽한 중국 가족사진이 되는건데...

이혜연 | 동구 만석동

우리 멋지죠?

약 20년 전 대천으로 친정나들이 갔을 때 아이들과 조카들이 절벽에 멋지게 기대서 사진을 찍었네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 부츠가 멋지지 않나요?

홍중순 | 용진군 영흥면



큰 손 할머니 호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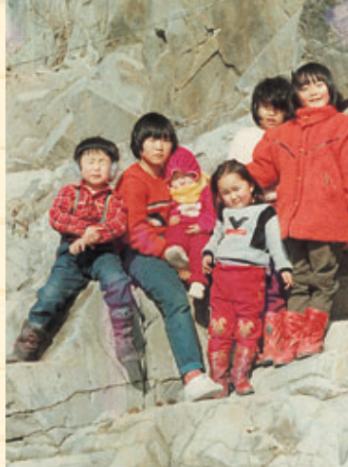
할머니는 육교 중간쯤에서 비닐로 바람벽을 치고 호떡장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육교 옆으로 고층아파트가 처음 생겼는데 할머니는 공사로 인해 오래 동안 장사를 못했었다. 사정을 살피주셔서 할머니 계단 아래로 내려와 조립식 가게를 갖게 되셨다. 누군가 합판에 종이를 붙여 가게 이름을 써줬다. <큰 손 할머니 호떡>. 호떡이 익을 동안 아들 중현이와 난 가게를 홍보했다. 할머니의 미소가 거기에 있어 오갈 때 마다 행복한 것을...

조은숙 | 부평구 부평3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미래형 블루오션 '로봇'

지구를 침략하는 나쁜 무리들에 맞서 싸우는 로봇이 만화영화나 공상과학영화를 통해 인기를 얻은 것은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당시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것이었지만 이제 로봇은 우리 일상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맞춰서 로봇에 입력하여 함께 생활하는 시스템, 바로 동반자 로봇을 비롯해 사람을 대신해 청소를 하거나 집을 지키고, 교육을 시키는 로봇, 수술을 대신하는 로봇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허브도시'답게 최첨단 로봇이 살아 숨쉬는 로봇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자유사진가



인천표 무쇠 팔 무쇠 다리 만드는 '규델'

지난해 12월 1일,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이 그어졌다. 스위스의 산업용로봇 전문기업인 규델(Gudel Group AG)사가 제조업 용지에 약 4천9백㎡ 규모의 산업용 로봇조립공장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진 것이다.

이날 공장을 준공한 규델리니어텍(사장 박영식)은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1954년 설립된 스위스의 산업용정밀기계전문 기업인 Gudel AG사가 모태다. 스위스의 규델사는 세계 9개 나라에 지사와 현지법인, 13개 나라에 대표사무실을 두고, 한국지사에서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총 책임지고 있다.

1997년 한국에 진출한 규델사는 남동공단에 터를 닦고 제품을 생산했다. 2003년에는 매출액이 18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 자체공장 설립을 위해 KOTRA 취리히와 한국투자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택과 인천 등을 투자지로 검토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에 KOTRA 사장,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참여해 MOU를 체결해 인천 투자를 최종 결정했다.

IFEZ와 규델사는 지난해 1월, 투자기본계약을 맺고 총 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1차로 25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 이번에 공장을 짓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규델사 공장부지는 IFEZ가 50년 장기임대방식으로 제공해 외국기업의 토지매입대금 부담을 줄여줘 무난한 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었다.

한국 진출이후 매년 1300종 이상의 개발품과 로봇을 생산해 연매출 300억을 기록하고 있는 규델리니어텍은 자동차의 부품가공용 다굴절로봇, 차체 핸들링 및 용접용 트랙 모션시스템, 트랜스미션 라인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로봇을 생산해 왔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는 물론 대우공작기계, 두산기계 등의 공작기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다굴절 로봇이 바로 메이드인 인천, 규델사의 제품이다. 송도 경제자유

구역 제조업용지에 등지를 틀게 된 2006년 이후로는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아울러 경제적인 로봇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로봇 생산의 강자로 뿌리를 굳게 내릴 계획이다.



로봇으로 환생한 콜로세움 검투사

송도에 로봇공장이 있다면 남구에는 로봇경기장이 있다.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EBS에서 철찬리에 방영되고 있는 '로봇파워' 프로그램이 바로 남구청 곁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것. 로봇파워는 배틀로봇과 휴머노이드, 주니어로봇을 직접 제작, 조종해 여러 가지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배틀로봇(battle robot)은 '싸우는 로봇'을 말한다. 고대 로마시대 원형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벌이던 경기를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싸우며 인간의 '싸움 본능'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휴머노이드는 이종로봇들의 경기다. 로봇태권V나 마징가Z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로봇이 바로 휴머노이드다. 이 로봇들에게 미션을 주어서 승부를 가르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경기다.

이번 녹화의 미션은 볼링핀 쓰러뜨리기. 서로 마주보는 벽 위에서 서 있는 볼링 핀 9개를 먼저 쓰러뜨리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 이번 경기에는 4개 팀이 출전해 서울산업대학교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김두룡 학생이 만든 엑셀레온피스맨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로봇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로봇комплек스를 건립하게 되면 로봇을 매개로한 관광 명소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적인 로봇클러스터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니어로봇은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주고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다. 이번 미션은 '우주정복'.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탐험해 주어진 시간(2분) 안에 테니스 공 5개를 두 대의 로봇이 릴레이로 먼저 옮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로봇교실에서 실력을 닦은 블랙로즈 팀이 승리했다.

EBS 로봇파워가 이곳 남구 특설경기장에 자리를 잡고 녹화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8월 25일의 일이다. 남구가 2004년부터 로봇대전을 치러왔기 때문에 EBS의 제의에 따라 인천에 닻을 내리게 됐다.

벌써 7회 녹화를 맞은 남구 특설경기장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로봇 경기를 관람하러 온 초등학생과 가족들로 가득 찼다. 인천과 서울은 물론 멀리 충청도 서천, 강원도 원주에서 로봇 경기를 보러 온 가족들은 로봇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사람처럼 정교한 움직임에 연신 탄성을 지르며 녹화장을 뜨겁게 달궜다. 전국에서 1천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기도 하는 등의 관광특수는 로봇파워가 가져온 '덤'이다.

로봇 메카 인천

인천과 로봇대회의 인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시작된 로봇게임이 국내에 소개돼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규모의 로봇대회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남구는

이것을 하나의 대회로 통합해 지난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도원동 시립체육관에서 열었다. 처음 열린 로봇대전에는 전국에서 157개 팀,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다음해 2회 대회에는 176개 팀의 50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205개 팀 600여명 선수가 참가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남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인천 지능형로봇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와 함께 추진할 로드맵도 멋지게 그렸다. 이 로드맵은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글로벌 브랜드의 로봇축제로 육성하고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을 포함한 종합센터를 구축해 지능형 오락·교육 로봇산업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10년까지 495억원의 예산으로 로봇комплек스를 짓는다. 이곳은 로봇경기장을 비롯해 교육장, 체험장, 전시장, 국제R&D연구센터, 기업집주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로봇테마파크(로봇랜드)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시는 남구를 주축으로 여기에도 적극 뛰어든 계획이다. 로봇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로봇комплек스를 건립하게 되면 로봇을 매개로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계적인 로봇클러스터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산업진흥원과 IT벤처기업들의 합작도 남다르다.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는 교육용 로봇을 개발하는 키즈키즈 등 로봇 관련 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특히 에스비텔레콤은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유료로봇사라는 법인을 설립해 3년 내에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 인천의 로봇 산업은 '블루 오션'을 향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인천 학생 3년이면 로봇제작도 '척척'

인천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손쉽게 로봇을 만들고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로봇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남구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주관이 돼 주말마다 꾸준히 '청소년창작로봇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교실은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



자기초반인 노벨반부터 수업이 진행된다. 간단한 회로부터 시작해 광통신회로 실험까지 전자회로를 배우는 노벨반을 마치면 차례로 에디슨반, 빌게이츠반을 거쳐 아인슈타인반까지 '진급'하는 시스템이다. 청소년 창작로봇교실을 수료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고, 무선 제어용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지난해는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로봇교실에 435명이 참여해 420명이 끝까지 수업을 마쳐 수료율 97%를 자랑했다.

청소년창작로봇교실을 수료한 학생들의 '전적'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제8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지역예선대회에서 청소년창작로봇교실을 수료한 10개 팀이 참가해 1위부터 6위까지를 휩쓸었고,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열린 전국대회에서는 전국 2위, 전국 3위 등을 차지해 조직위원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10개국의 대표선수 500명 참가해 호주에서 열린 제8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세계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환웅천황(김웅식, 김홍준) 팀이 1위를 수상해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청소년 창작로봇교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인천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교육은 이른 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_인천시정보산업진흥원 245-2000)



재미있는 로봇.. 제대로.. 배워볼까?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에 이르기까지 로봇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여럿 있다.

로봇파워에서 이미 5연승을 달성한 바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기 산학협력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문대학으로는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유일하게 지능형로봇분야에서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이다. 또한 인천여자공과, 재능대학 등에는 로봇학과가 개설돼 있고 인천기계공과에서는 정밀기계과 학생들이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있다.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소프라노 신영옥 신년콘서트 'Love Duets'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명 지휘자 프리드리히 하이더와 멕시코 최고의 테너 페르난도 델 라모라 그리고 세계 4대 명문 교향악단 중 하나인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새 음반 'Love Duets' 에 수록된 곡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통 오페라의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사랑'이란 공통주제를 절묘한 섹스로 조화시킨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 내용이 사랑을 주제로 한 듀엣곡들이기에 연인, 가족, 친구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1월의 따뜻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_ 2007년 1월 25일(목) 오후7시30분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티켓 _ VIP석 130,000원/R석 100,000원/S석 80,000원/A석 60,000원
문의 _ 싸이즈엔터테인먼트 (1588-5952)

어린이 마당극 '콩쥐와 팥쥐엄마'



이 이야기는 서양의 '신데렐라'와 줄거리 전개가 비슷한 우리의 고대소설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중한 구전동요와 놀이동요를 적절히 배치하여 토종 뮤지컬을 구성했다. 상황과 사건 전개에 가장 적합한 동요를 들려줌으로써 우리 동요가 갖는 현대적 의미를 부각 시킨 작품이다. 작은 효과음 하나에서부터 휘모리장단까지 공연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악기들로 현장의 생동감을 더해 주며 구전동요는 화음을 강조한 아카펠라로 선보일 것이다.

일시 _ 2007년 2월 3일(토), 4일(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전석 15,000원 (예매시 12,000원) **문의** _ 플러스기획 (080-071-1212)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신년음악회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세계합창제에 초청되면서부터이다. 반원의 독특한 형태로 둘러앉아 지휘자의 눈빛 사인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듣는 모든 이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 합창의 본고장인 유럽의 까다로운 평론가들의 입에서 '유럽 수준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합창'이라는 격찬과 함께 최고의 대우와 존경을 받으며 이미 한국에도 수많은 고정 팬이 있는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가 새로운 지휘자 마크 카피오와 함께 인천 무대에 선다.

일시 _ 2007년 1월26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티켓 _ 20,000원 **문의** _ (주)인터쿨투르 (02-2068-8000)

EBS와 함께하는 세계곤충학습체험전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하고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보고 만져 볼 수 있는 이색체험 마당이다. 다양한 곤충들의 영상과 점점 잊혀져가는 매미, 배짱이, 여치 등 여러 곤충의 소리들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살아있는 전갈, 독거미, 이구아나, 그리고 뱀들의 생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일시 _ 2007년 2월25일 까지(오전10시부터 오후6시)
장소 _ 문학월드컵경기장 매소홀
티켓 _ 어린이 8,000원, 성인 10,000원.
문의 _ 창라이프 (1566-6551)

임형주&바이에른 챔버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Lim Hyung-Joo & Bavarian Chamber Orchestra New Year's Concert



2003년 데뷔한 이래 3년 동안 발매된 5개의 앨범이 모두 클래식 차트 1위를 고수한 팝페라의 제왕 임형주는 클래식에 서부터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르며, 많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매력을 지닌 가수이다.

특유의 고음과 미소년의 외모, 그리고 정통 성악으로 다져진 고급 이미지가 그의 주요한 인기 요인이다.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난 임형주는 2000~2001년 사이에 각종 음악 콩쿨에서 1등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후 예원예고 성악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 후 2년 뒤, 임형주는 팝페라 스타일의 앨범 'Sally Garden'을 발표하며 국내 음악계에 전격적으로 컴백하였고, 이로써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임형주는 2004년 3월에 자신의 3번째 팝페라 앨범으로 기록된 'Misty Moon'을 내놓아 그해 국내에서 발매된 팝 앨범 중 유일하게 10만장의 판매고를 넘기

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5년에는 인기 TV 드라마 '해결 천향'의 OST에 '행복하길 바래'란 곡으로 참여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에른 챔버오케스트라(Bavarian Chamber Orchestra)는 독일에서도 특히 오케스트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남부 바이에른 주를 대표하는 실내 관현악단으로 1979년 창단되었다.

약40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BCO는 창단 당시부터 유려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이미 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았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일시 _ 2007년 2월 2일(금) 오후8시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_ 인천&아츠 사무국 (420-2027~8)

BOOK

손장원 '다시 쓰는 인천근대건축'



기존에 발간된 문헌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인천지역 근대건축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책이다. 여기에는 저자가 1990년대 초부터 정리를 시작했던 인천지역 건축물에 대한 조사 자료와 해반문화사랑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여러 성과들이 밀바탕이 되었다. 저자는 기존 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검증했으며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건축물과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 수록했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사진자료 및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관련문헌을 살폈고, 근대건축물을 찾아 4년간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답사했다. 손장원(孫長源)은 건축역사학자이자 공학박사이다. 1962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1989)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석·박사과정(2002)을 마쳤다. 재능대학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인 그는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 및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과 (사)해반문화사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1(일)	1월	24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공연 오후 7시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화인오케스트라 ☎ 258-8225	25 2007 신영옥 신년콘서트 오후 7시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3만원~6만원 싸이즈엔터테인먼트 1588-5952 ☎ 011-508-6334	26 필리핀마드리갈싱어즈 오후 7시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만원 (주)인터쿨투르 ☎ 02-2068-8000	27 제인가족30주년 기념음악회 오후 5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제움 무료 ☎ 421-7681	28
29		30 중부연합회 장로찬양단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초대 ☎ 522-9059	2월	2 임형주&바이에른 챔버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오후 8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 420-2027~8	3 어린이마당극 콩쥐와 팥쥐엄마 오후 2시, 4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5천원, 1만2천원 플러스기획 ☎ 080-071-1212	4 어린이마당극 콩쥐와 팥쥐엄마 오후 2시, 4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5천원, 1만2천원 플러스기획 ☎ 080-071-1212
6	9	10 유리상자콘서트 오후 4시, 7시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만원, 4만원 월드기획 ☎ 831-9189		11		
한국여성도예가회& 한국강화문화예술원 주최 <한국도예작가초대전> 1월 8일~31일 마리산미술관(937-9320)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李仁石 만국공원

글 · 김학균 시인



1976년 12월초 은행의 연말 업무가 바쁜 오후 한상익 선생의 전화를 받고 신포시장을 가로질러 나간 곳이 은성다방. 빼격거리는 목계단을 올라 다방 내부로 들어섰다. 중앙에 놓인 일명 별 집난로가 태양처럼 별장게 달아 금세 얼굴이 난로 같은 색깔로 변해버린다.

선생이 앉아계신 창가에 등만보이는 또 한분의 노신사(58세쯤)가 앉아 계셨다. 정갈하게 탄 가르마, 굵고 검은 안경테에서 느낄 수 있는 엄숙함. 내가 본 이인석 선생의 인상은 준엄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다.

인사를 드리고 마시는 차. 32살의 청년은 숨소리조차 자유스럽지 못할 정도로 꼭 죄지은 사람 마냥 무겁기 이를 데 없었다.

그 때 두분이 하시던 말씀도 시 속에 녹아있는 것처럼 시국(時國)에 관한 내용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이셨다. 서울(용산구 후암동)로 가신 후로 업무차 인천에 내려오시며 인천을 잊지 못하신다는 것이다.

정에 겨운 문우(文友)를 만나거나 절친한 지인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흥금을 털어놓다가 “백성(국민)은 살아있어” “잘들 해 먹으라지” 하는 말로 종결을 짓고 쓴웃음을 웃으셨다. 이러한 모습이 책(시집 혹은 시극)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은가 한다.

이인석 시인의 출발은 문단적 환경이 정치 격변기와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생산과 희망, 그리고 국민(근로자)을 노래하여 특이한 점이 많았다고 하나 이는 곧 애국, 애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시심(詩心)의 발로이다. 물론 사물의 근원적인 존재성을 예리하게 관조하는 서정의 미가 가득한 작품들도 있으나, 생활과 시를 연결하는 생명력 있는 비판의 시가 더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0여년을 인천에서 살며 ‘첫사랑’을 상제하여 인천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를 많이 남긴 시인의 고발정신은 진취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풍자적

유머의 정신도 어느 시인 보다 각도를 달리하며 참으로 감각적임은 물론 현대 시 창작의 틀을 다 갖춘 글이다.

응봉산(지금의 자유공원)에 올라 향구를 내려다 보며 읊은 <만국공원>은 울창한 숲과 대화를 나누며 모진 세월의 질곡을 잘 묘사, 큰 감흥을 지금까지도 주며, 부두의 노동자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그림이다.

만국공원으로 올라가 보자.

<만국공원>

1 층계를 올라서면
바다가 보이고
호수처럼
수목들의 내음이 물려온다

이카시아.....
파편에 허리를 뚫리고도
풍만에 겨우
계절의 향기를 던지누나

사철나무라일락
오, 네 이름은 무엇이던가
죽는 줄만 여긴 너도
꽃 피울 차비에 분망하구나

포탄이 우박처럼 내린
상흔에 서서
푸름을 이어가기에
모두는 쉬임과 슬픔을 잊었느냐

푸른 내음은
깊은 곳에 자리한 밀어
또한 다함없는 침묵의 변
네 안에서 나를 찾아본다

2 인개 속에 잠겼던 거리
햇볕을 받들고 떠오른다
이침 일곱시.....

노동자들은 한패 두패
부두쪽으로 사라진다
조개장수 아낙네들이 거리로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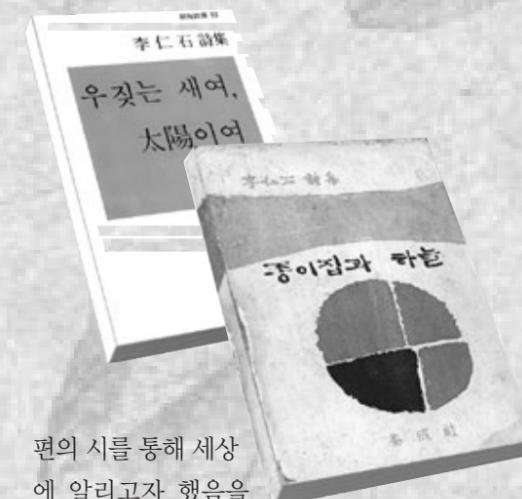
학생들이 길을 쓸며 올라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뛰엄박질 내기하며 올라온다

뱃고동과 기적과 나직한 소음.....
역사의 운전대엔
이침을 이는 굳건한 모습들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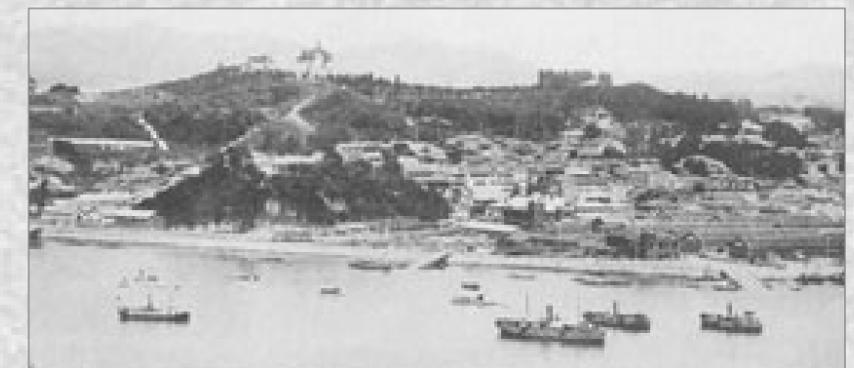
「종이집과 하늘」 1961

이인석 시인은 (1917. 12. 8~1979. 11. 3) 황해도 해주 해운동에서 태어나 1936년에 해주보고를 졸업, 평남 도립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 해방후 월남, 인천에 거주했다. 1955년 서울로 이주 할때까지 <근로자 공보>의 편집국장, <경인일보>논설위원 등을 지냈으며 1948년 「백민(白民)」에 추천, 문단에 나왔다. 「백민」에 시 <우렁찬 노래>로 문학에 입문한 시인은 1955년 「사상계」에 <종이집과 하늘>, 문학예술 <불춤>, 자유문학에 <용(龍)>, <탄피와 감초>를 발표,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첫 시집 <사랑>에서는 바다를 소재로 한 인천의 시를 많이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그 중에서 <화평동(花平洞)>, <인천향>, <문학산 근처> 등은 아직도 후학들에게 면면히 읽혀지는 작품들이다.

1961년 ‘종이집과 하늘’을 상제하고 1979년 11월 3일 자택(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별세했으며 그 이듬해 80년 4월 창비사에서 유고시집으로 발간된 「우짚는 새여, 태양이여」를 남겼다. 「종이집과 하늘」의 저자 후기를 보면 시인은 암울하고 찢어지는 아픔을 38



편의 시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우짚는 새여, 태양이여’의 세 번째 시집에서 미망인과 아들(이인해)의 올림글에 ‘인사말씀’을 단 김규동은 발문에서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 심도있게 다룬 시집으로 평했으며 ‘김수영’이 시와 피흘리는 격투를 했다면 이인석은 시와 현실의 양면과 그 나름대로의 만신의 힘과 정성을 쏟아 쓴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길을 걸었다고 했다.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재평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평가라 했던 김규동 시인의 말처럼 그의 문학사적 업적이 다시 한번 꽃피길 빈다. ♡



황금돼지띠해 성투하려면?



저축을 하건 투자를 하건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목표의 성취도나 평소의 생활태도에 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실제로 오랜 기간 고객들의 저축 및 투자와 관련한 상담과 조언을 해온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장기 목표나 계획이 있는 고객의 경우 뚜렷한 목적이 있기에 수입을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철저히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듯 철저한 투자관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 또한 현실이다.

글 · 김전욱 부장 HSBC은행 인천지점 PB 454-7013

목표를 세우자

투자를 통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장기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의 경우라면 2, 3년 후 결혼하고 차는 3, 4년쯤 후에 사고 집은 결혼 후 6, 7년쯤 사겠다는 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저축 및 투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가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집을 넓힌다든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겠다는 등등 무수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연 몇 %의 수익을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등의 계산이 나오고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계산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방식이 결정되면 기대하는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안정적이며 기대수익을 충족할 수 있는 나만의 최선의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에 대해 투자자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기적인 투자 상품만이 아니라 연금이나 청약저축상품, 그리고 보험상품 등 장기적인 상품 또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생에 걸쳐 같이 가야 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대비가 없이 남들 하는대로 유행에 따른 저축 및 투자만을 한다면 장기대비 상품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노후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체계적인 실천계획 수립

첫째 나만의 자산관리를 위한 가계부를 작성해 볼 것을 권유한다. 자산 가계부를 쓰게 되면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내역이 파악되기 때문에 내 자산의 관리가 투명해진다. 또한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결산을 통해 현재 내 재산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과연 전 기간 대비 얼마만큼의 자산이 증가했고 목표는 얼마 정도 달성했는지, 낭비한 돈은 없는지,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등의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렇듯 계속 가계부를 쓰게 되면 해마다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와 액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주기적인 목표 달성도를 체크하여 원하는 바대로 투자와 저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수정 없이 계속 진행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수립한 목표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지 아니면 현재의 투자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듯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실패할 확률은 매우 적은 것이다. 두 번째로 나만의 자산 가계부와 별도로 정기적인 자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회계적인 용어로서의 대차대조표는 복잡한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는 원래의 것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만을 떼어다가 만드는 간단한 개념이다. 즉 현재시점의 나의 재무상태를 정리하기 위한 간단한 표로서 현재 총재산은 얼마이고 그 중 저축은 얼마, 투자는 얼마, 그리고 투자자산 중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은 얼마인지, 보유하고 있는 부채 중 단기부채와 장기부채의 비율은 어떠한지 등등의 꼭 필요한 항목만을 떼어다가 만든 것이다. 이는 자산가계부와 함께 보다 명확하게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달성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실천해 봄으로써 새해에는 모든 투자자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글 · 김종석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성은 가정에서 더욱 소중한 존재이다. 아내로서 남편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엄마로서 자녀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여성은 건강해야 한다. 말하자면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잘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이 건강해야 만사가 건강

여성들에게 중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중년은 대개 35세부터 65세 사이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귀한 결실을 맺는 시기이며 또한 사회적, 개인적 부담이 큰 때이기도 하다. 중년기에 이르면 여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도리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권위의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강해 많은 남성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 남편에게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다 보면 여성은 자기 목소리를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살다보면 심한 경우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찾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미 신라시대에 여왕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여성의 능력은

예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결국 강한 여성에 대해 남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둘째, 남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남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면 항상 실망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도와주었을 때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내가 좋아서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실망하게 된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자

셋째,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의 값은 남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남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현실을 잘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생을 즐겨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음악, 미술 등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성인병 예방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하여 큰 관심은 쏟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정신이 건강해야 하므로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마천루처럼... 높은 키의 미남자

인하대학교 배구감독

최.천.식

글·김 류 시인 | 사진·김보섭 자유사진가



우 리 인천 출신 스포츠 스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미남, 미녀가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천식(崔千植) 감독 같은 이는 정말 처음 만났다. 같은 남자라도 부러워 죽을 만큼 미남, 선남, 쾌남의 조건을 다 가졌기 때문이다. 이목구비의 윤곽이 하도 뚜렷해서 오히려 날카로운 듯이 보이는 얼굴, 희랍 조각상처럼 선명하게 선이 진 쌍꺼풀 눈, '늘씬' 을 훨씬 넘어 마천루(摩天樓)처럼 높은, 197센티의 하늘을 찌를 듯이 까마득히 높은 키-맏다. 최천식 감독의 키는 '큰 키' 가 아니라 '높은 키' 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미 장년, 중년에 이른 나이임에도 변함없이 선수 시절 청년 그대로, '코트의 귀공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밝은 모습, 등등.

최 감독은 정말 평생 두고 부모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세상 남자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 대단한 매력 점들을 다 선친 최영두(崔泳斗) 선생과, 1960년대 인천 동일방직 여자 배구 대표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모친 박춘강(朴春江) 여사로부터 골고루 물려받았으니 말이다. 300밀리미터 크기의 거대한 발과 소담 뚜껑 같이 넓고 큰 손바닥. 이 세상을 한번에 거머질 듯한, 그 큰 손과 처음 악수하면서 거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기 손을 가진 이쪽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최 감독은 이렇게 다른 남자들의 선망을 뭉땅 지닌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독 생활 채 2년도 안돼 한국 대학 배구계를 완전히 평정한 영예까지 더했으니...



인천을, 한국을 세계에 드높인
'마천루 같이 높은' 남자.

저 신사의 부드러운 품격과 장자(長者)의 이미지가
올 한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에게 유포,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이쪽을 한층 더 심란하게 했던 것은 동행한 젊은 여성 기자까지도 도무지 이 귀공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사실이다. 물론 최 감독과는 같은 인하대학교 선후배라는 인연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흔히 있는 스포츠 스타와 팬의 관계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쪽의 심정은 그제 쓸데없이, 주책없이, 슬프고 신경이 쓰여서 자꾸 질문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의 심술은 마침내 난로가 고장이 나 추운 감독실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그가 그 큰 손으로 타 준 커피도 공연히 맛이 없게 느껴지는 데까지 발전했다. 최 감독이 그것을 눈치 챌 듯 싱긋 웃으며 일어서는 것이다.

“코트로 나가시죠. 거기 온풍기가 더 나올 겁니다. 선수들은 오후 3시 반부터 연습을 시작하니 지금은 코트에 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체육관은 딱 배구 코트가 하나 들어앉은 넓이었다. 스탠드도 몇 단 안 되는, 그러니까 선수들만을 위한 연습 전용 체육관인 듯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코치나 감독 외의 관계자나 체육 관련 학교 인사가 참관하러 오는 경우 내놓는 자리인 듯, 체육관 중앙에 있는 의자 몇을 끌어다 이쪽을 앉게 하고는 천연스레 입을 여는 것이다. 이제 이쪽은, 여기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기로 마음 깊이, 깊이 작정을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 그때 키가 1미터 72쯤 됐어요.”



이때 이미 그의 신장이 이쪽 ‘성인’의 키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최 감독의 모친 ‘박춘강 선수’의 신장이 175센티였으니, 초등학교 꼬마가 거의 어머니와 맞먹는 키, 높이를 가진 것이다. 사실 1960년대 여자 배구 선수의 신장이 1미터 75라면 그것은 거인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선친 역시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1미터 75의 신장에 역도를 하신 스포츠맨이었다. 그러나 최 감독의 모든 것은 분명 어머니를 빼닮은 것이다. ‘모전자전(母傳子傳)’이라는 말이 옳은가. 2미터에 육박하는 그 높은 키도, 배구 스타로서의 자질도 대부분은 어머니로부터였을 것이다.

최 감독이 배구를 시작한 것은 인하부중 2학년 때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사회인 배구팀에서 활약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바로 인하대 체육관에 드나들며 눈으로 배구를 익혔던 것이다. 최 감독은 창영초등학교에서 인하부중으로 스카우트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한국 배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 ‘어린 거인’이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학교 때, 집에서 친구 하고 둘이서 15~6인분 밥통을 흘랑 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참,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소고기 2근 정도는 혼자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먹은 것이 전혀 체중으로 가지 않고, 저토록 부럽도록 아름다운 몸매를 이룬 것이다. 그가 걱정하는 요즘의 체중도 실제 키에 비하면 그다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암살이다. 부인의 채근인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나.

“술은 소주 3~4병 정도면...”

그러면서 주량은 고작 소주 3~4병이라니... 은퇴한 것처럼 키가 큰 옛날 어느 농구 감독은 하룻밤에 ‘몇 짝’을 해치웠다던데. 그러나 이해한다. 현역 감독이라는 위치도 있고,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귀공자의 미끈한 이미지



를 남기기도 해야 할 터이니. 담배는 서른 넘어 피우기 시작했다는데, 그 이유만큼은 자상하고 착하다. 후배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할 경우, 종종 담배 때문에 불편해 하는 후배들을 배려하다가 자신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담배 풍습은 선후배가 엄하고 나이 고하가 철저한 것이다. 자연 식탁을 떠나 들락거리는 후배며, 안절부절 하는 아우며, 그런 모습이 싫어서 티놓고 함께 피우자며 반 흥내를 내다가 그만, 자신도 배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최 감독의 후하고 넓은 인간성은 코트의 후배이자 제자인 선수들을 결코 아프게 하지 않는다. 말로, 대화로 깨닫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서로 인내하게 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하나의 팀(team)을 이루게 하는 일. 그것이 진정 승리를 아는 덕장(德將)의 온기이고, 그게 바로 전국을 휩쓸어 20연승, 30연승, 40연승을 기약하는 지장(智將)의 체취가 아닐까. 최 감독, 그가 존경스럽다. 더구나 그는 공을 남에게 돌릴 줄 안다. 장자(長者)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랜 선수 생활, 국가대표 생활, 한때 인기상을 독차지하던 카리스마, 은퇴, 평범한 항공사 직원, 한 시즌 동안의 실업팀 감독 대행 경험, 그리고 다시 퇴직과 사업 실패, 중학 교사, 대학배구팀 감독. 이런 성공과 좌절의 과정들이 최 감독을 그렇게 성숙시켰을 것이다.

“금년 전국 다섯 대회를 모두 석권한 것은 전적으로 전임 문용관 선생님의 공입니다. 문 선생님이 그 동안 선수들 기초를 철저히 닦아 주신 데다가, 재목감들을 잘 골라 스카우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구요.”

인하대 배구 창단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봄철대회, 가을대회, 전국체전, 종합선수권, 그리고 강자 4개 팀이 마지막으로 벌이는 대학배구 최강전 등 5개 대회를 휩쓴 것이다. 인하대의 경사, 인천의 경사였다. 2005년 4월까지 모교 인하부중 2학년 5반 담임이었던 초짜 감독이 지난해 이루어

낸 성적이다. 준우승만 4번을 했던 팀을 일약 5관왕에 등극시킨, 시중 어느 일간지의 표현을 빌리면 그야말로 대학 배구 최대의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아내는 부산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때 잠깐 배구를 했었어요. 선배 한 분이 중매를 한 셈인데, 실상은 배구 때문에 만났다고 해야겠지요. 아내는 167센티 정도로 보통 여자 키이지요. 애는 세 살짜리 사내애와 1살 여자애, 이렇게 둘입니다. 그런데, 애 키가 벌써 1m가 넘어요. 당연히 배구 시켜야지요. 포지션은 세터.”

새해 첫 호 『굿모닝 인천』이 만난 기분 좋은 인천 신사. 귀공자. 최 감독. 인천에서, 모르긴 해도 인천 시민 중에서, 아마 제일 키가 클 것 같은 남자. 인천을, 한국을 세계에 드높인 ‘마천루 같이 높은’ 남자. 그에게서 풍기는 저 신사의 부드러운 품격과 장자(長者)의 이미지가 올 한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에게 윗,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최 감독이 항공모함만한 오른손을 내민다. 그러면서 하도 공을 때려서 닳았는지 왼손보다 작다고 한다. 그 손을 잡으며 그냥 기분 좋게 한번, 그의 성공시대를 축복해 주듯 겨울 하늘을 향해 크게 웃는다. 애써 무표정을 만들던 여자도 다시 예쁘게 웃는다. ♪



연례행사 돼지 잡는 날



우리 가족에겐 연말에 작은 행사가 있다. 바로 돼지잡기! 성탄절에 가족끼리 기분 좋게 저녁식사라도 하고 난 잠이면, 돼지 배를 가른다. 동생이 군것질하고 싶은 거 참아서 넣은 코 묻은 돈도 나오고 엄마가 지갑에 들고 다니기 귀찮아 넣어둔 동전들도 나온다.

연말 돼지잡기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지하 셋방 살 때에나, IMF로 정말 오백원 짜리 동전조차 쉽게 쓰지 못했던 때에도 거르지 않고 치러온 우리 가족의 중대사였고 식구들의 소박한 행복이자 희망이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끼리 여행가는 데 쓰거나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던 물건 구입(에어컨 장만 같은 것들)에 쓴다. 올해엔 새해 일출 보러 동해에 가는 데 경비로 쓰기로 했다. 식구가 제각각 바쁘고 나도 고3이다 보니 일출 여행은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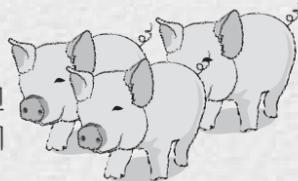
아직 거실 탁상 위의 돼지는 해맑게 웃고 있지만, 돼지의 최후를 알고 있는 나는 벌써부터 새 돼지 장만을 물색하고 있다. 예전엔 빨간 몸통에 크고 검은 눈을 가진 돼지였고, 올해는 속이 흰히 보이는 투명돼지를 키워서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년에는 복자가 크게 씌어진 번쩍이는 누런 '황금 돼지'가 유행이라던데 그놈이나 한번 키워볼까. 우리 식구가 앞으로도 이렇게 알뜰하고 검소한 마음을 잃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김지혜_부평구 갈산동

돼지꿈이 준 선물

작년 이맘 때이다.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가 생신을 조금 앞두고 우리 집에 올라 오셔서 며칠 계셨다. 우리는 형제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생신 상을 차려드리곤 한다. 우리 집에 며칠 묵게 되셨던 차에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참 좋은 꿈을 꾸었다며 복권 얘기를 하셨다. 무슨 꿈인데 복권을 사자고 하느냐며 몇 차례 물어보니 너희 집 부자 될 꿈이라며 말을 이어가셨다. 꿈 내용인즉 우리 집 베란다에서 꺼먹돼지 세 마리가 놀다다며 부자 될 꿈이라고 하시는게 아닌가?

순간 나는 그 꿈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에 든 제일 큰돈인 십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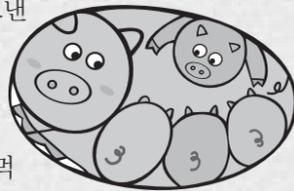
며 그 꿈 나한테 팔라고 했다. 본래 나는 지갑에 돈을 많이 넣지 않고 다니는데 전날 무엇을 하려고 찾아왔던 돈이 있어 드렸더니 냉큼 파신다고 돈을 받으셨다. 평소엔 자식이 돈을 주면 덤석 받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덤석 받으시며 좋아 하셨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안된 일요일, 올케가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라다. 병명은 뇌사. 11개월된 아들을 남겨놓은채...

형제는 많았지만 조카를 봐줄만한 사람이 딱히 없어 오빠에게 내가 당분간 봐 줄테니 데리고 오라했다. 그게 작년 크리스마스 날이다. 나에게도 5살과 3살된 딸이 있다. 아직도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 올케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채로... 엄마의 돼지꿈이 가져다준 조카가 크리스마스 선물인 셈이다. 잘 키워야 할텐데...

이상순_서구 당하동

우리집 살림밑천 돼지

어린시절을 시골 농촌에서 보낸 나는 '돼지' 하면 우리 부모님 재산목록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릴때만 해도 옆집에서 먹다 남긴 음식찌꺼기나 쌀뜨물 같은 구정물을 걷어다 먹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무겁고 냄새나는 것들을 돼지에게 먹이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마다 머리에 이고 나르셨던 것이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해 음식물쓰레기란 단어도 없을 때지만 설령 음식물쓰레기가 온다 해도 돼지의 먹이로 해결되니 요즘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될 일은 결코 없을 때였다.

돼지는 유난히 새끼를 많이 낳는 가축 중의 하나였는데 어떨 때는 열 마리도 넘는 새끼 돼지가 태어나 부모님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부모님은 처음 며칠동안은 돼지우리에서 사시며 새끼돼지들이 한 마리도 상하지 않고 젖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줘 가며 애지중지 키우셨다. 그 때 당시는 돼지가 우리 집 살림밑천이자 우리들 학비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올해는 돼지해라고 한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돼지. 모든 이의 살림살이도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혜미_부평구 삼산동

황금돼지해에 태어날 아이들

쌍춘년에 결혼을 해서 올해(황금돼지띠) 아이를 낳을 예비 엄마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미래를 생각해 보자구요. 요새 대학이 많이 생겨서 대학에 못가지는 않지만 황금돼지 아이들은 대학 경쟁률이 사상 최대가 될 수도, 취직 걱정도 지금보다 더하지 덜하진 않을것입니다. 2000년에 태어난 즆른둥이들처럼... 그렇게 복 받으며 태어난 아이들이 7년이 지난 지금 사립학교나 학원에 가려면 줄을 설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황금돼지해에 태어났다고 그 아이들이 모두다 재물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일테고... 또 불임 부부들을 생각해 보자구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데 불임 부부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성별을 가려 낳고, 낳는 해를 가려 낳는 것은... 아이가 생겨 건강하게 낳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만으로도 황금돼지 못지않은 모든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재_연수구 선학동

돼지와 함께 보낸 어린시절의 추억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용현시장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집의 살림에 보태고자 돼지 몇 마리와 닭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 돼지가 번식을 하게 되어 일정 기간이 되면 돼지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돼지라는 것이 팔려갈 때는 '뽕뽕'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저와 4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은 무섭고 겁이 나서 장롱 속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강화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작은 고모님댁에 놀러가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에게 돼지를 보여주며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림일기에 쓰더군요. 오늘날에는 도회지에서는 볼 수가 없고 농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돼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오원택_남구 주안2동

손주녀석이 태어난 돼지띠 해에

우리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주녀석이 있지요. 그녀석이 태어난 1995년 12월은 손이 귀한 우리 집으로서는 큰 경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을 가려먹고 편식이 심해 그녀석의 뒷바라지가 여간 힘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늘 우리집식구들은 그녀석이 뭘 먹어도 '돼지처럼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인가 학교에서 농구선수로 뽑힐 정도로 이제는 덩치가 커져 할미인 제 키를 훌쩍 넘어 지금은 돼지처럼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도원아 할미는 내년에도 돼지처럼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허인순_중구 신생동

다음달 글의 테마는 '저금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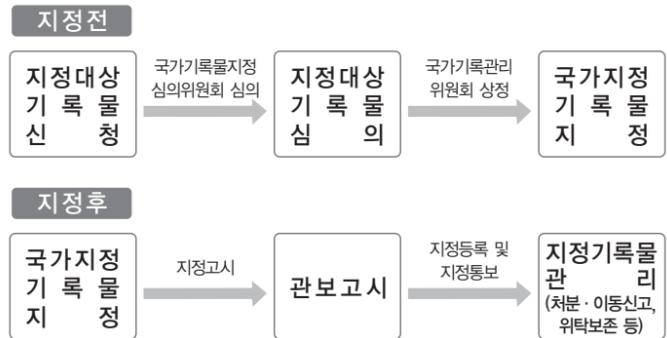
다음달 테마는 '저금통장'입니다. 저금통장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2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_440-2072)

국가기록! 미래의 소중한 정보자원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취약한 보존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민간 소장 역사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기증·위탁보존·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기록물은 과학적인 보존처리(소독·탈산·수선·복원)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제도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신청받아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기증(寄贈) :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역사적 가치 등을 평가, 협의 후 기증받습니다.
 - 위탁보존(委託保存) : 위탁보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역사적 가치 등을 평가, 협의 후 위탁받아 보존합니다(위탁보존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매입(買入) : 중요한 기록물은 원본여부 및 역사적 가치 등을 감정한 후 매입하기도 합니다.
 - 사본수집 : 기증이나 위탁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록물 사본을 제작하거나 디지털화하여 보존합니다.
- 중요 기록물(문서, 사진 등)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민간기록물' 코너(www.archive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기록원 수집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기록원 수집관리팀 (042-481-6311)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최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 요령을 지키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피해발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구축·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상대방의 정체를 알자 - 정체불명은 위험
금전을 맡길 때와 마찬가지로 빌릴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함
 - ② 계약서 및 영수증을 챙기자 - 훗날의 피해에 대비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를, 금전을 상환했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피해구제가 어려움
 - ③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명·날인하자
- 무조건 서명·날인은 위험
대출액,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하고 추후 몰랐다고 주장해도 구제가 어려움
 - ④ 급할수록 돌아가자
-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은 위험
불법 사금융 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⑤ 제도권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 사전예방이 최고
사금융 이용자의 35%가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바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음('05년 설문조사)
- 문의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홍보팀(02-3771-5907)

제5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모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정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전가정 육성과 가족윤리 회복에 기여하기위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운영하고



- 모집기간 : 2006년 12월 26일(화)~2007년 1월 10일(수)
- 모집대상 : 인천지역거주 여성중 상담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 모집인원 : 80명
-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군·구 여성업무관련과 (사회복지과, 주민서비스과, 주민복지과, 여성과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반영명판사진 2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관련자격증·경력증명서·상담연수 이수증(해당자), 자기소개서 각1부
- 양성교육기간 : 2007년 1월~2월중(100시간) 예정
- 장소 : 석바위 소재 여성복지관 세미나실(2층)
- 주요 교육내용
 - 상담윤리, 사회복지 관계법 전반, 상담대상별 상담기법
 - 알콜중독자, 가족치료 등 상담기법
 - 상담의 기초원리와 기법, 상담사례실습, 실무사례 발표 및 역할연습 등
- 수강료 : 무료
- 수료후 특전
 - 100시간 교육 이수후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수료증 교부
 - 군·구 일선기관(읍·면·동사무소) 배치 상담활동
- 문의 : 시 여성정책과(440-2714, 군·구 여성업무관련과)

공단 사칭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사기 주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하여 가입자에게 유선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은행 오류로 인해 입금이 되지 않으니 직접 인근 은행을 방문토록 유도하고 은행 CD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전화를 안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타계좌 온라인 입금 전화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전화 수신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어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인천지사(770-3520)

인천대학교 중국통상CEO과정 신입생모집

- 모집인원 : 00명
- 수업연한 : 1년(2학기), 매주1회 (월요일, 오후 6시~오후 9시 40분)
- 지원자격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공무원,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 공·사기업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 기타 중국통상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인사진(반명함판)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일(화)~1월 31일(수)
- 합격자 발표 : 2월 12일(월) 개별통보
- 특전 : 공직자 우대, China Business Network 구축 학기중 해외연수
- 문의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 FAX. 770-8501)



정해년福 많이 받으세요.

2007년 <굿모닝 인천>은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호는 예산배정 등 여러가지 행정문제로 발행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 모집인원 : 00명
- 수업연한 : 1년(2학기), 매주1회(수요일, 18:30~21:40)
- 지원자격 :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관리자, 비영리 단체의 임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인사진(반명함판) 1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2일(화) ~ 1월 31일(수)
- 합격자 발표 : 2월 12일(월), 개별통보
- 문의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학부 (770-8502~3 / FAX. 770-850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이용하세요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에서는 시민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자 무료로 상담·치료하고 있습니다.



- 종합상담
 - 상담내용 : 가족·신상·이혼·가정폭력·성폭력·아동·건강문제 등
 - 상담실 : 여성복지관 내 (434-6436~7, 434-0182)
 - 간이상담실 : 인천지하철 부평역사 내 (522-0154)
 - 사이버상담 : <http://women-center.incheon.go.kr> → 여성상담 → 사이버상담

- 변호사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사전 예약 후 당일 내방 및 전화상담)
- 가족방문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 신청자 모집
 - 대상 : 부부갈등, 자녀문제, 우울증, 가족원간의 갈등 등 가족 문제로 상담 및 가족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방법 : 전문상담원 방문상담, 가족치료전문가 심리 및 신경정신치료
 - 내용 : 가족의 문제해결 도움 및 유관기관 연계, 심리검사를 병행한 가족치료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 (관련교육이수자) 모집 : 연중 수시
-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용 시청각 자료 대여
-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434-6436~7, 434-0182)

우리말 '뚝' 바로 알기

<굿모닝인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연재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 /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X)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집이 우리 집이다'에서 '가르치는'은 '가리키는'으로 써야 합니다. 일깨워서 알게 하는 행동은 '가르치다'이고, 직접 알리는 행동은 '가리키다'입니다. '할머니께 길을 가르쳐 드렸다'와 '손으로 친구를 가리켰다' '시곤패들이 네 시를 가리켰다' 처럼 구분하여 씁니다.
출처_<초등 만화 맞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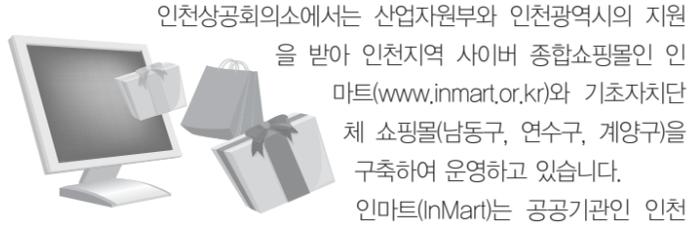


이달의 국가유공자 김동수(金東洙)



김동수(1916. 12. 6~1982. 2. 20) 독립유공자는 1916년 인천출생이다. 1923년 부친을 따라 중국 상해로 건너가 인성소학교와 공시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에 입학하여 훈련받았다. 1936년 7월 중국 육군 제25사단 견습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37년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남경에 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1939년 10월 임시정부가 유주에 있을 때 나월한·이하유·박기성·이재현 등과 함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조직하여 부대장이 되었다. 이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서안을 본거지로 서북방면으로 전지공작을 전개하여 적의 기밀을 탐지하고 동포청년을 초모하는 등 백여명으로 구성된 전투부대였다. 1941년 1월 1일 한국청년전지공작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광복군 제5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제5지대의 부지대장 겸 제1구대장이 되어 서안을 중심으로 장병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초모, 선전, 정보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42년 3월 부대원간의 불화로 대장 나월환의 암살사건이 있어 이에 연루되어 무기형을 받고 입옥되었다가 사면되었다. 1945년 4월 광복군 총사령부에서 경위대를 중경에 설치함에 그는 제3대 대장을 역임하였다. 경위대의 주요임무는 광복군 총사령부 경비 및 고위 요원의 호위, 광복군의 간부요원 교육과 양성 그리고 일본군내의 한국인 사병에 대한 초모작전 등이었다. 광복 후 1946년에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동북특파원으로 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중국당국과 교섭하여 교포 귀국의 편의를 도모하고 1948년 6월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자료제공_인천보훈지청(430-0125)

사이버쇼핑몰 '인마트' 이용하세요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지원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지역 사이버 종합쇼핑몰인 인마트(www.inmart.or.kr)와 기초자치단체 쇼핑몰(남동구, 연수구, 계양구)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마트(InMart)는 공공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종합 오픈 마켓으로서 안정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며,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달리 입점비, 판매수수료 등 사이트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물론 수시로 실시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교육(전산, 영업, 디자인 등) 비도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천 소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인마트에 입점하시어 제품 홍보와 판매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점기간 : 수시
- 대상 : 인천지역 소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 소상공인, 소호
- 입점절차 : 입점계약→입점아이디생성→상품등록→입점완료
- 관련비용 : 전액무료
- 구비서류 : 입점신청서 및 계약서 (소정양식) 1부, 상품사진(파일) 및 홍보 문구,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1통, 거래통장 사본 1매, 인감도장
- 접수 및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담당 고성범대리 810-2851)

인천의료원 무료검진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2007년 2월 5일(월)~2007년 2월 9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5)
 - 2007년 2월 12일(월)~2007년 2월 16일(금)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건강관리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간염검사, 비만도 측정
- 검진인원 : 간염검사-50명, 비만도 측정-50명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651-5, 580-6478)



한중문화관에 놀러오세요



21C 뉴 실�크로드 한중문화관은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8개 우호도시에서 기증받은 물품 등이 전시돼 있고 주민을 위한 중국어 어학강좌, 중국문화특강, 한국어 교실, 중국 전통의상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문화쉼터입니다. 한중문화관에서는 2007년 새해맞이 특집 공연 한미당 등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 무료영화상영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 장소 : 한중문화관 4층 공연장
- 중국문화 체험코너
 - 기간 : 연중
 - 장소 : 한중문화관 3층
 - 체험 : 중국의상 및 중국차 체험
- 역사 체험코너
 - 기간 : 연중
 - 장소 : 한중문화관 2층
 - 체험내용 : 궁중의상 및 탁본 등 역사체험
- 공연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3시
 - 1월 14일(일) 미스 고 밴드
 - 1월 21일(일) 외국인 재즈밴드와 JS재즈밴드의 하모니
 - 1월 28일(일) 성악 4중창과 현악 4중주 협연
 - 2월 4일(일) 라틴댄스 공연
 - 2월 11일(일) 퓨전전자현악
- 문의 : 한중문화관(760-7860)

사업 고민 짜~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컬러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대표 웰빙 식품
'김'



바다의 암초에 이끼처럼 붙어서 자라는 김은 길이 14~25cm, 너비 5~12cm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10월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해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고, 그 뒤는 차차 줄어들어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인천에서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에서 가장 많이 난다.

김은 홍조식물에 속하는 해조류로서 인간이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해조류이다. 바닷가 바위의 옷 같 다하여 해의(海衣) 또는 해태(海苔) 외에 감태(甘苔) 및 청태(靑苔)라고도 불려진다. '김'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김여익의 성(姓)을 딴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온다.

김은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다. 김에는 비타민과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김의 맛을 내는 성분으로는 핵산인 이노신산, 구아닌산 및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알라닌 등의 맛이 복합돼 있다. 신기한 것은 마른 김을 먹는 것보다 구웠을 때 맛이 더욱 좋아질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지수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을 굽는 과정에서 세포막의 변성으로 김의 향기나 막의 성분, 기능성 엑기스 성분이 세포막 밖으로 쉽게 녹아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 시 수산과



謹賀新年



2007년 정해(丁亥)년은
모두 따뜻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보의 하루는 올해도 변함없이
가장 좋은 원료만을 엄선해
특별한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문의전화
1544-1582